

2019 제26호

창원의회소식

CHANGWON CITY COUNCIL



박덕률 作 (겨울나무)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CONTENTS

창원시의회 | 통권 제26호

04 신년사

06 제3대 창원시의회 구성현황

1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2 언론 보도자료

37 의원 칼럼

57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76회 임시회 (2018. 7. 1. ~ 7. 2.)
- 제77회 임시회 (2018. 7. 17. ~ 7. 26.)
- 제78회 제1차정례회 (2018. 9. 4. ~ 9. 28.)
- 제79회 임시회 (2018. 10. 24. ~ 10. 31.)
- 제80회 제2차정례회 (2018. 11. 26. ~ 12. 20.)

92 예산심의 활동

96 시정에 관한 질문

- 제78회 제1차정례회 (이우완 의원 등 2명)
- 제80회 제2차정례회 (박선애 의원 등 2명)

100 5분 자유발언

- 제77회 임시회 (박춘덕 의원 등 7명)
- 제78회 제1차정례회 (정순옥 의원 등 9명)
- 제79회 임시회 (박성원 의원 등 7명)
- 제80회 제2차정례회 (김종대 의원 등 7명)

113 건의안·결의안

-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문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문
- 진해 연도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 병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문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문
-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문
-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문
-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문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
-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창원 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

133 상임위원장에게 묻다

136 위원회 활동

142 2019년도 회기 운영계획





존경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과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고 늘 웃음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3대 창원시의회가 출범하였으며 창원세계
사격선수권대회, 창원특례시 추진 등 창원시의 위상을 크게 높여 주는 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도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의정활동의 역량을 총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 **이 찬 호**



2019 己亥年
다짐을 응원합니다

제3대 창원시의회 의원(지역구)



의 장
이 찬 호



부 의 장
김 장 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 치 우	손 태 화	김 순 식	노 창 섭	이 해 련
부위원장	박 선 애	백 태 현	이 우 완	전 흥 표	김 경 희
위 원	백 태 현	공 창 섭	김 상 현	권 성 현	김 종 대
	정 길 상	구 점 득	문 순 규	김 우 겸	박 남 용
	김 경 희	김 경 수	박 선 애	김 인 길	박 성 원
	백 승 규	김 상 찬	심 영 석	김 장 하	박 춘 덕
	이 우 완	김 태 응	이 종 화	이 치 우	박 현 재
	전 흥 표	백 승 규	이 현 순	지 상 록	정 길 상
		이 천 수	임 해 진	진 상 락	정 순 욱
		주 철 우	전 병 호	최 희 정	조 영 명
		최 영 희	최 은 하		한 은 정



의장 이찬호
(반송,중앙,웅남동)



부의장 김장하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권성현 의원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백태현 의원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최은하 의원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구점득 의원
(팔룡,명곡동)



김우겸 의원
(팔룡,명곡동)



주철우 의원
(팔룡,명곡동)



공창섭 의원
(봉림,용지동)



박현재 의원
(봉림,용지동)



김경희 의원
(반송,중앙,웅남동)



김경수 의원
(상남,사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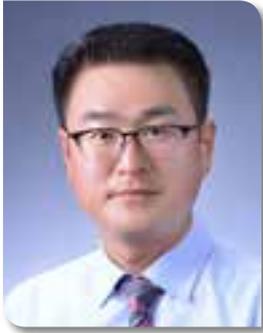


노창섭 의원
(상남,사파동)



한은정 의원
(상남,사파동)

제3대 창원시의회 의원(지역구)



박남용 의원
(가음정,성주동)



백승규 의원
(가음정,성주동)



이천수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지상록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전홍표 의원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정길상 의원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박성원 의원
(완월,자산,오동동)



전병호 의원
(완월,자산,오동동)



김순식 의원
(교방,노산,합포,산호동)



최희정 의원
(교방,노산,합포,산호동)



이우완 의원
(내서읍)



진상락 의원
(내서읍)



김종대 의원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임해진 의원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문순규 의원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손태화 의원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조영명 의원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김상현 의원
(중앙,태평,충무,여좌동)



이해련 의원
(중앙,태평,충무,여좌동)



김인길 의원
(태백,경화,병암,석동)



정순욱 의원
(태백,경화,병암,석동)



김태웅 의원
(이동,자은,덕산,풍호동)



박춘덕 의원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심영석 의원
(웅천,웅동1,2동)



이치우 의원
(웅천,웅동1,2동)



이종화 의원
비례대표



김상찬 의원
비례대표



박선애 의원
비례대표



이헌순 의원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
비례대표





2018. 7. 1. 창원시의회 개원



2018. 7. 1. 창원시의회 개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정례회)



도시발전 연구회



역사·문화 연구회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8.07.03. 의장 인터뷰



2018.07.10. 의장실을 방문한 주민들



2018.07.11. 의장단 간담회



2018.07.11. 의장단과 창원시장과의 간담회



2018.07.17 세계국제사격장 방문 격려



2018.07.17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2018.07.19 창원시립어린이집 방문



2018.07.25 고 노회찬 국회의원 분향소 분향



2018.07.25 제5회 큰창원 한마음 예술제



2018.07.25 원코리아 피스로드 2018



2018.08.08. 관내초등학생 들의 의회견학



2018.08.15 제73주년 광복절기념 창원대종 타종행사



2018.08.21 양곡초등학교 학생 본회의장 견학



2018.08.28.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2018.08.28 경남시군의장협의회



2018.08.29 제1차 의정연찬회



2018.09.01 세계사격선수권 개막식



2018.09.04 제7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09.04 제3대 초선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2018.09.04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개막식



2018.09.05 경기 성남시의회 방문



2018.09.06 전남영광군의회 의장 방문



2018.09.07. 사격대회 시상식



2018.09.12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식



2018.09.12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 안 채택 협약식



2018.09.13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방문(창원노인통합지원센터)



2018.09.14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2018.09.19 추석맞이 관내 경로당 방문



2018.09.20 지역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성금 전달식



2018.09.20 창원시의회 의장단 초청 입주기업 소통간담회



2018.09.28. 제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09.28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 고대사 특강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8.10.01 부의장 주재 의장단 간담회



2018.10.02 아이스버킷챌린지



2018.10.02 제209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2018.10.07 창원중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제10회 한마음대회



2018.10.18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대표단 방문



2018.10.18 제39주년 부마항쟁 기념식



2018.10.24.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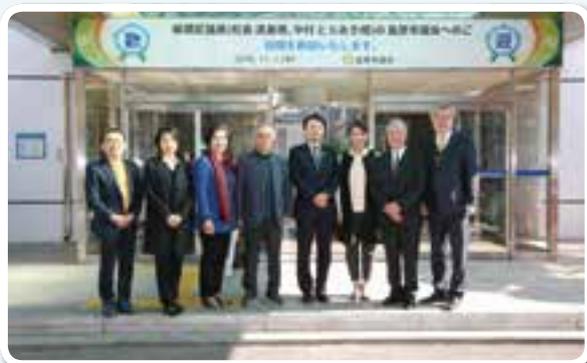
2018.10.24 창원특례시 추진 설명회



2018.10.27 창원단감축제 개막식



2018.10.29 제23차 세계한인 경제인 대회



2018.11.01. 일본 이타바시 구의회 의원 창원시의회 방문



2018.11.05 농촌일손돕기



2018.11.08 의정연찬회(제주)



2018.11.14 한국마사회 창원지회 함께하는 드림마차 기부



2018.11.15 제210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2018.11.26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8.12.09 창원시 자원봉사자대회



2018.12.20 창원시의회 폐회기념 사랑나눔



2018.12.20 창원시의회 폐회기념 사랑나눔 퍼포먼스



2018.12.27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2018.12.28 고양시의원 및 직원 방문





창원시 제3대 의회 본격 의정활동 시작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제3대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인「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 처리하게 된다.

이찬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77회 임시회는 제3대 창원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다. 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을 점검하여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의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창원국제사격장 대회 준비상황 점검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에서는 7월 17일 오후 창원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직후 창원국제사격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함께 창원국제사격장 사격시설을 둘러보면서 관광사격장 사격체험 활동을 하는 등 사격장 시설에 대한 점



검을 하고,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심재욱 단장으로부터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이찬호 의장은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안전우선의 성공대회가 개최되어 우리 창원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안전한 보육 환경 대비 어린이집 방문

창원시의회(이찬호 의장)는 최근 발생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온열사고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7월 19일 오후 안전한 보육 환경 관심 제고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날 이찬호 의장과 김장하 부의장은 의창구 용호동 소재 창원시립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실 등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더운 여름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과 어린이집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찬호 의장은 “아이들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故)노회찬 국회의원 시민분향소 조문



창원시의회(이찬호 의장)는 7월 24일 오후 故)노회찬 국회의원의 비보를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하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병원 앞 문화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조문에는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함께해 모두 비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찬호 의장은 “진보정치의 상징인 정치계의 큰별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 이루 말 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정치의 방향은 달랐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다. 그러한 마음을 이어받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창원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의장단, 市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7일 오전 의장실에서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7명,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류효종 행정과장 등 간부가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이 있었으며, 간담회를 통해 의장단과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주요 해법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얻는 신뢰받는 행정 추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고 현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태풍대비 지역구 예찰활동 나서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8월 23일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제19호 태풍 ‘솔릭’ 복상에 대비하여 지역구 취약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제19호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이라는 기상청 특보에 따라 당초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계획되었던 의원연찬회도 긴급 취소하고, 의원모두가 태풍에 대비하여 지역구별로 취약지를 둘러보면서 태풍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찬호 의장도 이날 오전부터 지역구인 성산구 반송·중앙·웅남동 일원의 침수우려 지역과 우수저류시설, 그리고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이 있는지를 둘러보면서 주민들에게도 태풍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태풍대비 예찰활동에 나선 이찬호 의장은



“의정연찬회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일정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6년 만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강한 태풍이 부상 중인만큼 태풍내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창원시의회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당초 23일부터 1박 2일간에 걸쳐 계획했던 의정연찬회는 오는 29일로 미루어 일정을 축소할 당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긴급 변경했다.

이찬호 창원시의회의장, 제8대 전반기 경남시군회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추대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이 경남 18개 기초의회와 264 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경남시군회의회의장협의회 (이하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경남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된 제208회 경남협의회 정례회에서 제8대 전반기 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참석한 시군회의장의 전원 추대를 통해 회장에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부회장에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 거창군의회 이흥희 의장을 각각 추대했고 감사에는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장을 호선 했다.



이날 추대된 이찬호 경남시군회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경남시군회의회의장협의회가 경남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 특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원시의회 9월 정례회 대비 연찬회 열어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오는 9월 정례회를 대비해 8월 29일(수) 진해해양공원 내 전시동 대회의실에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했다.

특히, 창원시의회는 통합창원시 제3대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현직 시의원 4명이 직접 특강 강사로 나서 족집게 강의를 하는 등 의정 연찬회에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개회식, 교양특강 1강좌, 의정특강 3강좌로 진행되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선애 의원이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교양특강을 하였다. 의정특강에는 기획행정위원장인 손태화 의원이 '예산안 심사기법'을, 윤봉현 강사(전 마산시의

회의장)가 '의회운영 기본'을, 김종대 의원(전 시의회 부의장)이 '행정사무 감사 전략과 기법'을 각각 강의하였다.

이날 강의는 분야별 경험이 많은 다선의 현역 의원이 손수 강사로 나서 기존 이론위주의 강의를 탈피하고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족집게 강의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됐다.

이날 연찬회에서 이찬호 의장은 “이번 제3대 의회는 초선의원이 27명으로 과반이 넘는다.”며, “조선 뿐 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오늘 연찬회를 통해 정례회 대비는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의회의회는 매년 1박2일의 일정으로 연찬회를 수행하여 왔으나 올해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내습으로 연찬회 일정을 긴급 연기했다가 이번에 당일 일정으로 축소해서 개최했다. 시의원이 직접 특별 강사로 나서는 등 강사비를 비롯한 예산 1,300여만원도 절감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초선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9월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송근 지도담당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상시제한사항 및 의정보고관련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주요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함께 노력 할 것이며,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창원관광 제대로 알기 「창원관광 명소 시티 투어」 실시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9일 창원의 주요 관광자원에 대해 더 제대로 알기 위해 「창원관광 명소 시티 투어」를 44명의 전체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시티 투어는 ‘창원 방문의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창원의 권역별 관광 명소인 마산상상길, 창동예술촌을 시작으로 진해군항문화탐방, 창원의집과 창원민속박물관을 순서대로 돌아보면서 문화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관광도시 창원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창원 관광 산업이 더 발전하고, 기존의 여러 관광 명소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산업도시 뿐 만 아니라 ‘관광도시 창원’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찬호 의장은 “관광산업은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꾸준히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다.”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역별 관광 명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홍보하여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호 의장, 창원사격대회 입상자 격려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은 9월 7일 오후 진행된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공기소총 여자 주니어 부문 시상식에 참석하여 입상자 9명에 대해 시상을 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찬호 의장은 공기소총 10m 여자 주니어부문 단체전에서 입상한 한국과 인도, 중국 등 선수 9명에 대해 입상 메달을 수여하고 선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축하와 함께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여자주니어 부문 10m 단체전에서는 한국선수로 오민정, 한가을, 김지연 등 3명이 출전하여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금메달은 인도가, 은메달은 중국이 차지했다.

이찬호 의장은 시상식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큰 대회인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상을 한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낸



다.”며, “특히,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룬 한국선수 3명에게 더 큰 축하와 함께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시상식은 수상자의 명예를 고양하고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국내 저명인사들이 각 부문별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회도 특례시 위해 뭉치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0월 1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3개도시 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 채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찬호 창원시 의장, 조명자 수원시 의장, 이윤승 고양시 의장, 이건한 용인시 의장 등 4개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8일 특례실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협약에 이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위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특례시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식에서 채택된 공동 건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각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9월 20일 제78회 제2차 본회의에 공동 건의안을 상정·처리한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함께 힘을 모으면 어렵고 힘든 일도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창원시를 비롯한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로방문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6곳을 위문 방문했다.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은 성산구 신촌동 요한의 집을 비롯하여 의창구 동읍 동진노인복지센터 등 6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생필품(라면,화장지)을 전달하며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로하고, 시설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13일 오후 요한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찬호 의장은 “지난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도 무사히 지나고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며,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지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 우수지자체 비교견학 실시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일~2일까지 1박2일 동안 대전광역시의회와 단양군 등 우수지자체 관광시설 벤치마킹 및 기관 견학을 실시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시설견학 및 운영 관련 브리핑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대청호 자연생태공원으로 이동하여 우리시 생태공원과 비교체험을 하였으며, 천정형 LED영상 구조물로 형성된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 견학으로 우리 시 광장 및 시내에 벤치마킹을 검토했다.

또한 단양군 스카이워크 탐방과 온달관광지 드라마세트장 방문으로 우리 시 스카이워크 설치지역과 해양 드라마세트장의 연계관광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이치우 위원장은“이번 우수



자치단체 관광시설 벤치마킹 및 기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능력 배양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현지의 우수 관광시설 활용사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과 연계한 운영 및 관광자원 개발사례 견학을 위해 평창군을 방문,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태화)의 이번견학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후 창원국제사격장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먼저 평창군 의회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숙소시설 등 대회 후 시설물 활용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다음으로 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이용한 테마파크 조성 및 스키점프대, 스키역사관 등 경기시설물과 연계한 다양한 운영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대관령과 이효석 작가를 기념하는 효석문화마을, 폐교를 복원해 조성한 예술인촌 무인예술관을 둘러보며 창



원국제사격장과 창원시 관광자원개발 접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태화 위원장은 “이번 견학이 대회 대규모 국제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물의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며 “창원국제사격장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연계·개발되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제8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30일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등 3곳의 복지관 건립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식)의 현장방문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진해 서부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창원시가 80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19년 준공예정인 ‘북면(감계) 복지회관’ 건립 공사현장과,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 및 보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은 “노인여가복지 수요증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여러 의견들이 사업기간 동안 개선 및 반영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 환경 기초시설 방문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제8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오전 성산소각장, 창원재활용종합단지 등 환경 녹지국 소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노창섭)는 먼저 성산구 신촌동에 위치한 성산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처리장 증설현장을 둘러본 후 이어서 창원재활용종합단지의 분리수거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현재 음식물처리장은 반입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한계로 증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준공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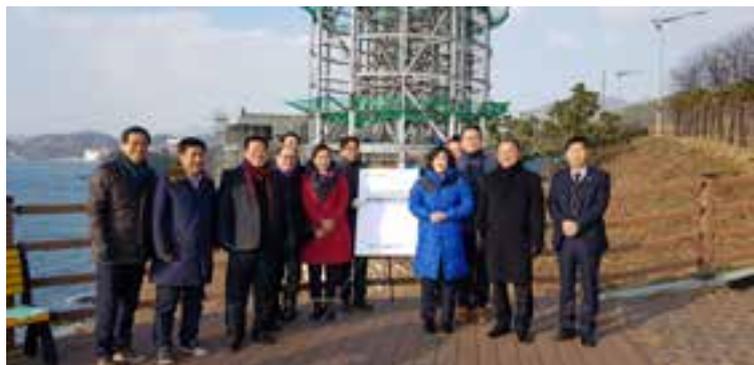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지난 7월 위원회 구성 이후 소관부서의 주요 사업현장을 위주로 현장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해왔다.

노창섭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특히 고마움을 전한다.”며 “우리시의 환경 기초시설의 증설 및 보수사업이 제대로 잘 마무리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현장 활동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진해 해양공원 짚트랙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련) 현장 방문은 내년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짚트랙의 공사 진행 및 안전사항 점검과 함께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확인 후 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 볼거리 제공과 안전한 이동수단, 부족한 주차장 및 계류시설 확보, 연계 관광 루트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점검을 한 이해련 위원장은 “추운날씨에 고생하시는 공사 관계자들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관광객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 얼음물 뒤집어 쓴 이유?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0월 2일 의장단이 함께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아이스버킷 챌린지에는 이찬호 의장을 비롯해 김장하 부의장, 이치우·김순식·노창섭·이해련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6명이 동참해 시의회 현관 앞에서 얼음물을 뒤집어썼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벤트로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뒤 3명의 도전자를 지목하고 릴레이로 기부를 이어가는 캠페인으로, 이번 동참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면서 성사됐다.

이찬호 의장은 “루게릭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의장단이 다함께 기쁘게 참여했다.”며, “이번 챌린지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호 의장은 다음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대상으로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BNK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상무 한기환, 농협창원시지부 김경곤 지부장을 지목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창원시의회 방문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0월 18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이하 대표단)을 초청해 해외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2018년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창원시의회가 대표단을 초청함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창원시의회에서는 김장하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오장숙 전)연변주인대상위 주임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을 영접하여 환담을 하면서 양 기관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단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장소인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사격체험 후 진해해양공원 시설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창원의 대표 관광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이찬호 의장 행안부장관에게「창원특례시」지정 건의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이 지난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12층 행정안전부장관실에서 개최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에 참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구 106만「창원특례시 지정」과 함께 대폭적인 자치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장과

의 간담회 자리에서 창원특례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창원시는 자율통합1호 시로서 도시규모나 역량은 이미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인구 10만 이하의 기초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열악한 행정·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늘어난 광역행정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에 대처가 곤란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상대적 불평등으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자율권·자치권 대폭 확대를 약속한 적이 있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자율 통합한 창원시가 자율적 도시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한 창원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고 건의했다.

7~9일 제주서 의정연찬회 열어, 제2차 정례회 대비 특강·토의 등 진행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1월 말부터 예정된 정례회를 대비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본예산 심의기법 토의, 결산·행정사무감사 평가 등 의정실무특강과 성인지적 폭력예방에 관한 교양특강 그리고 지역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선애 의원이 ‘시적감성으로 만나는 성인지적 폭력예방’에 대한 교양특강을, 최인혜 한국자치법연구소 소장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통합의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통합의정’이라는 주제로 의정특강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지역문화 탐방을 위해 관광명소인 제주도의 관광상품, 문화시설, 공유재산 등에 대해 꼼꼼히 둘러보며 창원시의 인프라와 비교·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2019년 본예산 심의기법 토의’와 ‘결산·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발전방안 토의’의 시간을 가지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



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 3일차에는 김인철 한국의회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장의 ‘지방분권의 현안과 개혁 방향’에 대한 의정특강으로 연찬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이찬호 의장은 “이번 연찬회기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의원 상호 간에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돼 시민들과 늘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자” 고 당부 했다.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4개 분과에 총21명, 상임위별 의정자문역할 수행)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1월 26일 오전 의회대회의실에서 새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창원시 의정자문위원회는 4개 분과에 5~6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연임위원 12명, 신규 9명 등 총 21명이며 1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의정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의정활동에 많이 반영되어 창원시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은정 창원시의원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 !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주관 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부문)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한은정의원원이 지난 11월 23일 전국 지방의회의원 친환경부문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우수의원(기초단체의원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 주관으로 전국 지방의원 3,500여명 중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6명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환경의 개념이 기존의 좁은 의미의 물,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문제에서 최근에는 에너지, 안전, 건강, 조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넓은 의미로 확장되었다.

선정 기준으로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한은정 의원(상남·사파동)은 2015년, 201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창원시민들에게는 환경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의원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지역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2월 27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2018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자치의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 된 도시개발

사업소 신도시조성과 이용화 과장 등 공무원 8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찬호 의장은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준 덕분에 오늘의 창원시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의미있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한해 마무리 (연말 폐회연 취소로 절감된 비용 200만원 기탁)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2월 20일 오후 본회의장에서「2018 창원시의회 사랑나눔 행사」를 열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성금 기탁에 동참하여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기부 문화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매년 진행해오던 시의회 연말 폐회연 행사를 취소하고 그 절감비용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제8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의 마무리 직후 전체 시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여 창원시 5개 구청별 어려운 이웃에 사용되도록 했다.

또한, 일회성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창원 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



는 의미를 담은 황금돼지 저금통을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모금을 통해 내년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찬호 의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어 연말을 맞아 성금기탁에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대 창원시의회 6개월간 의정활동 결산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20일 오후 제80회 정례회 마지막 날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지난 7월 1일 44명의 의원으로 출범한 제3대 창원시의회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해 본다.



창원시의회는 먼저 제3대 전반기 의장단으로 이찬호 의장 및 김장하 부의장을 선출하고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했다.

제3대 의회는 출범이후 우선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8월과 11월 2차에 걸친 의정연찬회, 그리고 비회기 중에는 상임위별 비교견학과 연구단체별 의원연구활동을 통해 의원 역량강화를 도모했다.

위탁이 아닌 직영형태로 이뤄진 연찬회는 의정운영에 대한 특강을 비롯한 조례안,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전문가 특강과 상임위별 심도있는 토론 등 실무위주의 연찬회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선배 의원들이 강사로 나서 족집게 강의를 함으로써 연찬회의 내실화와 함께 1,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당초 계획했던 1박 2일 예정의 1차 연찬회를 하루 앞두고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자 연찬회를 긴급 취소하고 의원 모두가 태풍에 대비하여 지역구별 재해 예찰활동을 실시하였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간 8월말에 관내인 진해 명동해양공원 내 대회의실에서 당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우선 챙긴 일화도 있다.

아울러, 의회 내에는 4개의 의원연구단체에 39명의 의원이 가입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그동안 간담회 2회, 토론회 1회, 비교견학 1회, 특강 3회, 유적지 탐방 2회 등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역사문화연구, 도시발전연구, 여성청년의원시정연구, 관광축제마케팅연구 등의 단체가 있다.

의회 내에서의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3회 등 총 72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결산안 등 총134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 9회 44명, 시정질문 2회 6명,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결산특위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의원 발의 조례 건수도 6개월간 총10건 발의하여 10건 모두 채택이 될 만큼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활발했다.



한편, 제3대 의회는 시민 중심의 현장활동도 활발히 펼쳐 지난여름 폭염으로 낙동강 수질악화와 녹조현상이 심화되자 폭염 속에서도 철서정수장을 비롯한 정수시설을 수차례나 방문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들을 적기에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상임위별 주요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도 수시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총30여 회의 현장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발로 뛰는 의회 상 정립에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복지시설 방문은 물론 루게릭병 환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함께 아이스버킷챌리지에 동참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도 앞장섰다.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경기침체로 산업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관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여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또한 11월 초에는 가을철 농번기 일손돕기를 위해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단감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에 나서기도 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창원특례시 추진에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9월 수도권의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시와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식을 가졌으며 이어진 제78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창원시의회는 여야 간 팽팽한 균형 속에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으로 긴장감마저 감돌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의원 간에 활발한 소통과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 최초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위한 '창원시 교복지원조례안' 채택과 58억원의 본예산 확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선의원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평균연령도 확 젊어진(평균 4.5세 ↓) 제3대 의회의 특성상 의원들의 왕성한 의욕과 열정이 더해져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집행부를 힘겹게 했다는 평도 있을 정도였다.

이찬호 의장은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6개월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심 없이 달려왔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며 “평소 창원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드리고자 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의장은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모두가 열린 마음과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지방시대, 분권이 답이다



이찬호 의원
창원시의회 의장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출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의 뒷면에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획일주의적 정책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가 커짐으로써 지방의 입장에서는 정치·사회적 소외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종전의 중앙정부는 지방을 정부로 인식하지 않고 상하 종속관계로 간주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음으로써 지방 자치의 형식은 갖췄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는 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체제의 제한적 지방자치에 불과했다.

지방분권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 추진을 해왔으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균형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일 발표된 종합계획을 보면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③ 강력한 재정분권의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제시되었다.

작년 10월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태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 시대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까지 개선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환경 속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자치분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자도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진해 근대건조물의 보전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 치 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따라서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에 출범하여 어느덧 27년이 되어 이제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거기에 입각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과 조례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시민의 소소한 의견도 놓치지 않고 수궁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게 지방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파에 속박되지 말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력과 행정력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 의회가 소통의 부재로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이 무색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창원시의회는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창원시 경제 기반구축을 확고히 해야 하며, 창원시에 시급을 요구하는 교육, 교통, 문화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다양하고, 살기 좋은 창원, 기업하기 좋은 창원 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들과 함께 106만 행복도시에 걸맞은 도시계획과 성장 동력에 대한 방안들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기획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창원시의회가 앞장서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원시 청사 건립을 추진할 때



손태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1980년은 마산시 창원출장소에서 창원시로 승격된 해이다.

당시 창원시는 인구 30만의 계획도시로 출발하였으나, 1995년 도·농 통합으로 계획도시인 창원시의 근간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도시의 곳곳이 난개발로 어느 곳도 계획도시의 원형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없어 안타깝다.

급기야 2010년 7월 1일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으로 계획도시 창원은 사라졌고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나 대도시 행정의 중심인 창원시의 청사는 시간이 갈수록 주차난과 행정사무공간의 협소로 이용하는 시민이나,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30만 인구의 행정을 처리하도록 계획된 사무공간이 이제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무공간으로 변화 되었으나,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제1별관, 제2별관 증축에 이어, 다시 주차빌딩을 증축하여 주차난을 해소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1,000여대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430여대 공간에 80여대의 주차공간을 증축 한다고 한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제 도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창원시 청사 건립을 추진할 때이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고 8년여의 시간이 지나 강산도 변한다는 10주년도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통합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본다.

대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창원광장과 현 창원시청 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유치 국제공모를 통한 통합창원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빌딩을 일본 도쿄 도청과 도쿄 의회 의사당처럼 행정과 관광의 명소로 창원시청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의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동안의 창원시는 창원국가기계산업단지가 시민의 먹거리 창출로 도시가 성장해 왔지만 이제 창원국가기계산업단지 뿐 아니라 조선업마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인구 또한 줄어가고 있다.

통합창원시와 비슷한 도시 구조를 가졌던 스페인의 빌바오는 산업혁명 이후 조선업과 제철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로 해상교통 요충지인 데다 철광석 매장량도 풍부했다. 하지만 철광석이 고갈되고 조선업이 무너지자 1970년대 말부터 급격한 쇠락으로 조선소가 차례로 문을 닫고 실업률은 30%에 육박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도시기반산업을 건축·상업·관광 등 3차 산업 위주로 바꾸고 공장시설 철거와 항만시설은 모두 하구로 옮기며 강물을 정화하여 강변에는 공원, 문화시설, 넓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도 조성했다. 그러자 실업률은 13%대로 낮아졌고,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으로 이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도시로 탈바꿈 됐다.

시청사 하나 잘 짓는다고 랜드마크가 되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프랑스에 에펠탑과 세느강만 있더라도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명소임을 파리를 다녀온 사람은 분명히 알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창원시청사 건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시 백년대계(百年大計) 청사건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때 창원시를 찾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의 터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통합3기 창원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적해 있는 대형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려야한다. 추진할 것은 빨리 추진하고, 퇴출시킬 것은 퇴출하고 새로운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먹거리를 찾아내 강력 추진함으로써 대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번 뒤쳐진 도시의 경쟁력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걱정 되는 고령화 사회, 작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



김순식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령화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창원시도 노년층 인구수가 12만 8천명으로 인구대비 12.1%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쯤에는 인구 4명 중 한명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예상돼 초고령 사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비해 현실적으로 대안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법률지식이나 각종 질병에 취약한 노인의 상당수가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가족이 있음에도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노년들의 이야기가 쓸쓸함을 자아내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등 우리사회는 빈번히 발생하는 '고독사'라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 보는 일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우리시에서도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독거노인이 겪을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집안에 화재, 가스 유출, 활동유무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주는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운영',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도시락 및 요구르트 배달사업' 등이 있다. 또한 노인의 빈곤과 무위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홀로 사는 장년(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도 준비 중에 있으나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65.4%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34.6%가 준비능력이 없거나 앞으로 준비할 계획 등의 사유로 현재 노후 준비를 못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한다.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현행 최대 20만9,960원(1인가구기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하위 20%에겐 내년부터 3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현실 탓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가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괄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백세인생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치매, 우울증,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통해서 독거노인 5~7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운영비 지원, 서로간의 안부를 확인하는 '지키미 서비스의 운영', 그리고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 육성에도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시의 눈에서 돌봄의 눈으로 돌아온 CC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노인들을 관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충격적인 기사들이 현실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씩 홀로 방치된 채 종종 뒤늦게 발견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폭염 속에 선풍기 하나 마음 놓고 켜지 못하고 쪽방촌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 보는 건 어떨까? 어떤 사회적 제도와 정책보다는 주변에서 가져주는 이웃의 작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초록이 내게 준 작은 행복



이해련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떠나지 않을 듯 했던 여름이 흘러 떠났다.

왜 허전함이 남는 것일까? 생각에 빠진다.

지난여름과 치열하게 싸우듯 보낸 나날이 떠오른다.

그들을 찾아다니던 날, 땀에 젖어 원망하듯 짜증내던 여름인데...

아마도 미운정이 들었나 보다.

가을이 성큼 여름의 자리에 다가서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고 눈치 보더니,

어느 날 불쑥 가을이 왔다.

계절의 변화는 늘 새로운 계절의 기대와 설렘을 동반한다.

낮선 도시에 첫발을 디을 때처럼, 조심스레 발길을 옮긴다.

가을처럼 불쑥 떠난 도보여행, 십여 년 만에 다시 찾은 낯선 도시에서 며칠을 보내며 산책하듯 즐기리라 마음을 먹고 걸었다.

생각보다 예전이나 변한 것 이 없는, 십여 년 전과 같은 느낌에 고통스러움을 더한 모습이었다. 순간, 뭔가 변한 것은 초록의 물결이었다. 가로수가 바람에 춤추듯 출렁이고, 어디를 보아도 곳곳이 초록으로 물들어져 있었다. 심지어 건물까지도 넝쿨식물들이 감싸 초록 옷을 입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상가마다 초록이 먼저 인사하며 맞이하는 도시로 변한 것이다.

문득, 유난히 초록도시로 변해가는 것은 이도시의 환경정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하천주변, 광장 등을 다니면서 옥상의 녹화사업 등 다양한 꽃과 식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곳에 발길이 멈춰졌다. 그리고 보니, 미세먼지예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초록의 물결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우러짐이 그냥, 사랑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맑은 공기의 싱그러움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꽃 화분 하나, 나무 한그루를 심는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하나, 둘, 그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한다.

돌아오는 길에 초록 동네, 우리 동네 꾸며가는 상상으로 행복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초록마을! 미소가득 품은 마음부터 바빠지기 시작했다.

창원으로 510년을 함께 살아 왔고, 마산 100년, 진해 60년, 잠시 헤어져 살다 다시 함께 산지 9년째, 610년 창원의 희망을 위해 역사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



노 창 섭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2010년 7월 1일 창원시민들의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시범 모델과 정치적인 통합 이었다.

통합이후 마산, 창원, 진해 소지역 간 갈등은 의회 안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통합 1대 의회에서는 통합 창원시 청사 위치 문제로 충돌했고 2대 의회에서는 프로 야구장 위치 문제로 충돌했다. 이제 통합창원시는 8년이 지나 9년째가 된다. 그리고 현재 창원시는 조선 산업과 기계 산업의 침체와 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 취임한 시장은 106만 창원시를 520년 동안 창원이란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복원하고 그 위상에 맞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제 창원시의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최초로 창원이라는 지명은 1408년 조선 태종 8년 대마도 정벌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의창현과 회원현을 합쳐 창원부로 승격하면서 탄생되어 610년이 되었다.

창원은 임진왜란 때 부민들의 공을 인정하여 지금의 광역시의 위상과 비슷한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남해안의 주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한일 합방이후 일본에 의해 마산포가 개항되고 진해에 해군 기지 사령부가 들어서면서 3개시로 분리되었지만 610년 이상 역사와 문화는 한 뿌리였다.

통합 창원시는 역사적으로 많은 유적도 공유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활동한 남해안과 우해이 어보와 조선시대 진해현 관아가 있던 진동과 삼진지역, 청동기 시대 진동리 유적, 가야시대 동읍 다호리 유적, 성산패총, 웅천읍성, 제포성, 최윤덕 장군묘지, 개항이후 많은 근대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사건인 3.1만세 운동의 삼진의거, 마산 3.15의거, 부마항쟁 등 많은 유적과 역사적 의미가 마산과 진해에 산재해 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통해 610년 동안 창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을 시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마산 100년, 진해 60년, 헤어져 이웃으로 살아온 동안 지역적 이질감은 심화되고 도시 발전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다. 이제 다시 통합이 된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소 지역적 차이와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해서는 창원시 미래의 발전과 희망은 없다.

먼저 1층 창원 역사 산업 노동 박물관 건립 추진을 전 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중심축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역사와 문화적 힘으로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창원시 의회의 창원 역사문화 연구회 발족은 그런 운동의 시작을 의회가 주도 하겠다는 뜻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 창원시의 역사를 잊지 않고 복원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자산을 잃고 사는 우리의 현주소



백태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얼마 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던 마애석불좌상(높이100cm, 너비55cm, 폭25cm)이 소답동주민운동장 아래에 묻혔다가 다시 발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행정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는 있지만 필자 또한 마애석불좌상이 소답동주민운동장에 묻혀 있는 동안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무관심도 한몫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게 훼손되지 않고 되찾을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창원에서도 '의창동'은 옛 창원대도호부가 있었던 역사·문화·행정의 중심지였다. 조선 성종 때 도호부를 중심으로 읍성이 만들어졌지만 일제 강점기와 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옛 읍성 등이 대부분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동문이 있던 곳에 성벽이 남아 있었지만 그 조차도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해 성돌들이 파묻히고 훼손되고 말았다. 현재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사업을 계획, 추진 중이지만 이미 들어서 버린 연립주택까지도 철거해야 복원할 수 있는 판국이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구 창원지역에는 유일하게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200호로 지정된 김중영 생가가 소답동에 있다. 김중영 생가는 우리 겨레의 노래인 '고향의 봄'에 나오는 '꽃대궐'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추상조각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우성 김중영' 선생이 나고 자란 곳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곳을 가보면 안채와 별채가 두 동강 나 있다. 1994년 창원시가 집을 가로질러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사미루(四美樓)가 있는 별채 구문정(求文亭)은 따로 떨어져 있어 본채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당시 함께 지정되지 못하고 말았다. 미술사적, 건축학적,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지만, 이미 집이 있던 곳에 빌라가 들어서버려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일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워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귀한 문화자산을 잃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역사 문화자산을 가지고 경제유발 효과 등의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이들도 있겠지만 문화자산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부심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창원시 미래는 밝다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썬 캄언’. 베트남어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이다.

최근 창원시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다낭시에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7급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 등 모두 6명으로 창원 한국어도서관 개관사업 추진을 위한 방문단이 꾸려졌다.

다낭시는 베트남 다섯 개 직할시 중 하나다. 호찌민, 하노이, 하이퐁 다음으로 큰 도시다. 다낭은 베트남 중부지역 최대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로 인구는 89만명인데,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120만명 정도로 창원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낭에는 한 해 14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80% 이상이다.

다낭의 창원 한국어도서관 개관사업은 2016년 11월 다낭시 부시장이 창원시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 지원 요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창원시 방문단이 다낭시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기관인 다낭 외국어대학교 및 한국어 초등교육기관을 방문했다.

한국어 도서 기증사업이 시작되면서 창원시 직원들이 기증한 8000권과 해군사관학교 3000권 등 총 1만1000권을 수집해 배송까지 완료했다. 도서관 개관사업 방문단은 2019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베트남 정부에 신속한 도서검열을 건의하고 창원시 새마을회 국제협력교류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다낭시청을 방문, 부시장을 면담하고 외무국 부국장, 농림국장 등을 차례로 만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방문기간 중 필자는 다낭시 간부에게 다낭의 관광홍보물을 대한민국TV로 홍보해주면 창원시 관광홍보물을 베트남 전국에 방송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장에게 건의해 보겠다고 하는 속제도 받았다.

방문단은 다낭 외대 부학장 및 한국어학과 교수와 함께 세부 일정을 조정하고 시립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검열이 50% 이상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현지 중학교를 방문했다. 해맑은 아이들이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보니 참 기분이 좋았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 창원시 인사조직과·행정과·의창도서관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들이다.

필자는 시의원으로 공무원을 지근거리에서 자주 접한다. 국내에서는 과묵한 이들 7급 공무원 내공이 외교적으로 밝은 빛을 발한다. 이들이 방문단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안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풍부한 해외인맥과 침착함을 겸비한 외교능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들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내유외강은, 창원시를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는 데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수소산업 육성, 창원시 미래먹거리 만들어야



김 경 희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수소산업은 창원시가 특히 강점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창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계산업 기술력과 높은 산업집적도를 갖고 있다" 창원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창원경제를 지탱하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성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시의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6.9% 감소했다.

게다가 제조업 가운데서도 비중이 큰 기계업은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높은 저부가가치 제품에 특화되어 있어 기술경쟁력이 취약하다. 특히 진해구는 올해 4월과 5월에 잇달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창원시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신 성장동력 산업 발굴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서도 수소산업은 우리시가 특히 강점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우리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계산업 기술력과 높은 산업집적도를 가지고 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 전문 업체들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국내 최초 수소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창원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및포럼(H2WORLD)도 개최해 수소 선도 도시의 이미지도 확보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수급의 용이성, 낮은 고갈 가능성, 다방면 적용가능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8월 관계부처합동 혁신성장 전략투자회의에서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수소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시도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수소 산업에 3397억 원을 투자하면 생산 유발효과 445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491억 원, 취업자 유발효과 약 2452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경제는 주력산업 위기와 대외리스크에 취약한 지역경제구조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내수침체의 장기화까지 겹쳐져 그 위기의 골이 깊다. 수소산업 육성처럼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창원시와 진해신항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진해신항만은 건설지역의 약 70%가 진해구에 속하지만 부산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신항 개발 이익에서 창원시가 소외되는 데다 생활 불편 등 피해만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진해구로 이관됨으로써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신항의 알짜배기는 부산시가 운영하고 기반시설 뒷바라지는 진해 몫으로 해당부서는 과부하 상태다 한마디로 땅과 바다를 내어 주고 우리예산으로 부산시를 수발하고 있다

신항에 추가로 건설될 22선석은 진해 17선석, 부산 5선석으로 대부분 진해지역이다. 진해 지역 조성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져 2020년까지 3선석, 2022년까지 7선석이 완공예정이다. 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항만부지 1945만㎡ 중 진해지역이 1342만㎡로 69%를 차지한다. 배후단지는 전체 944만㎡ 중 진해지역이 680만㎡로 72%수준이다. 지난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영도구 봉래동의 예, 부산 계류지를 진해항으로 이전하는 것 과 아울러 고압 가스 저장시설을 진해항 배후단지로 이전하는 2건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창원시의 반발로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을 백지화했지만 언제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할지 모른다. 진해신항을 조성함에 있어 창원시는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을 백년 동안 운영하면서 친환경적인 것은 부산에 설치하고 용도 폐기된 시설물은 진해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률 통해 반입을 막아야 한다.

진해 신항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에 설치될 경남랜드 마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 부산시가 해수부와 함께 지반약화 운운하며 가덕도의 유류중계시설과 위치를 변경하려하는 것에 대하여 창원시는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남 랜드마크는 진해 신항의 상징이며 21층짜리 타워로써 항만공사와 항만연수원이 설치될 것이다. 2020년 완공될 신항 제3차 무역항은 배후단지 및 랜드마크와 함께 창원의 미래 먹거리와 4만 여명의 일자리가 잠재되어 있다.

항만근로자를 보면, 부산항운노조원 7350명, 경남항운노조원 780명, 진해항운노조의 경우 93명에 불과하다. 현재운영 중인 부두 중 진해선석이 7선석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7선석이 더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산에는 항만물류고등학교와 해양대,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에 항만물류 관련 학과가 있는 반면 경남에는 가야대 학부과정, 창원대학교 경영 대학원에 항만물류과정이 있을 뿐이다. 창원시는 관내 7개 대학에 항만 물류과를 신설하는 작업과 해양항만 우수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학이 활성화되고 청년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며 사회간접 편익 비용도 증가될 것이다. 창원시가 진해신항을 주목하지 못하고 방기한다면 동남권 녹색성장의 중심 진해 동남광역 경제권 제1의 성장 거점도시창원으로 발돋움하는 꿈은 오롯이 부산으로 갈 것이다.



저질 체력남, 마녀체력에 빠지다



주철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기억1. 지난여름

우리 부부는 조그마한 사치를 한다. 피서를 겸해 특이한 책방을 찾아 통영에 있는 ‘남해의 봄날’에 간다. 전혁림 미술관 바로 옆이다.

이 작은 책방은 ‘독립 출판사’를 겸한 곳으로 난 ‘참 특별하구나!’라고 느낀다. 하지만 날은 덥고 몸은 힘들어 일찍 집으로 돌아간다. 아! 저질체력이여.

기억2. 6·13 지방선거

난 저질 체력으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힘에 부친다. 그 무렵 누가 ‘마녀체력’이란 책을 추천해준다. 내용이 몹시 궁금하다. 그런데 하! 신기하게도 그 ‘남해의 봄날’에서 출판한 거네.

기억3. 요 며칠

며칠 전 순식간에 그 책을 다 읽고 아내에게도 권한다. 아마 첫 제목부터가 날 확 사로잡아서가 아닐까? ‘게으름뱅이 저질 체력 에디터는 어떻게 아침형 근육 노동자로 변신했는가?’

아니다. 그것보다 아주 평범한 아줌마가, 그것도 40세에 시작한 운동으로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못 할쏘냐!’란 생각이 확 들었나 보다.

새삼 느낀다. 체력이 바탕이 돼야 정신력도 강해지는 것인데 그간 너무 몸을 사리며 머리만 썼나 보다.

책의 저자 이영미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을 인용한다. ‘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썩! 내 폐부를 깊숙이 찌른다.

난 바로 책을 덮고 나와 더운 날씨지만 태양을 향해 한걸음을 내딛는다. 또 누가 아냐? 몇 년 후 나 역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있을지.

독자들도 꼭 읽어보고 ‘마녀체력’ ‘마왕체력’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옥탑 방 무더위 속에서 ‘서민 생활 체험’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다.

아! 박 시장님은 저질체력이 아니지 않던가?

아무튼 5년차 ‘옥탑 방 선배 생활자’로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무더위도 마녀체력 앞에선 꿈쩍 못하길. 모두의 건투를 빈다.

창원시위원회 설치와 창원시의회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허성무 창원시장이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구현하고자 시정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각종 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다.

민선 7기를 여는 창원시장은 시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치를 구상 중인데 ‘새로운 창원위원회’, ‘지역경제발전위원회’, ‘대형공사검증위원회’,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위원회’, 중앙정부의 사례를 본뜬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지만 창원시 조직이 지난 규모와 능력을 무시한 기구의 설치에 집행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담당 부서의 복지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던 방식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기는 조직 흐름에 문제가 있다.

2010년 통합 창원시 이후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 사안에 대해 우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창원시에는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와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무려 158개가 있다. 하지만 매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경험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 갈등위원회의 구성원도 문제가 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갈등의 당사자인 부처간부 공무원들과 대의기관인 시·도의원들이 위원이다. 의원들은 의회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창원시 공무원은 제안 설명만이 필요할 뿐이다.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 중립적 차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마땅하다.

창원시에 존치하는 기존 위원회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비하고, 시민 공감과 갈등은 의회와 함께 문제를 나누면 될 일이다. 새로운 시장은 대형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감감이 사업진행을 자제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치하고 소통하며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론화위원회도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를 결정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46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490명의 시민 참가자들에게 일당 20만원을 주고 합숙까지 시켰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석 달 동안 20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

창원시에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업무분장에 있어 부서장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창원시 각 부처의 행정운영과 결정을 중첩적으로 만드는 건 기초 지자체의 모순이다.



생리컵을 아시나요



주철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지난 2016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했다는 소녀의 얘기가 전파를 탄다. 소위 ‘깔창 생리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모두 이 대책 마련에 부심할 때다. 나는 나름 열심히 연구해 그 대안으로 ‘생리컵의 사용을 권장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왜냐하면 실리콘 재질의 생리컵은 반영구적이었고 사용자의 경험을 전해 들으니 탐폰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었다.

그리고 이미 외국 여성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나 역시 딸이 하나 있지만 생리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생리대 가격조차도 제대로 몰랐다.

하지만 그날 불행하게도 보건소에서 나온 그 누구도, 또 우리 상임위원들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해 더 이상 얘기를 진행시키기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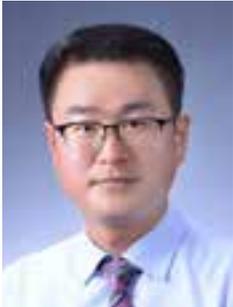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좀 더 알아보니 당시 생리컵은 국내에서 식약처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국내 상황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정식으로 ‘생리컵’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가 무려 4곳이나 등록됐지만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그 까닭은 최근 한 인터넷 뉴스의 기사 때문이다. ‘생리컵·탐폰 장시간 사용 독성쇼크증후군 일어날 수도’ 정말 섬찟하게 제목을 뽑았다. 이 인터넷 뉴스 기사는 제목만 봐도 ‘생리컵 사용을 좀 더 막아보려는 가상함이 엿보인다’라고 할까.

반면 한 일간지는 ‘생리대 건조 보관, 생리컵 끓는 물 5분 소독 기억하세요’라고 제목을 달고 생리컵 사용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쓴 기사인데 판이하게 다르다.

문득 그때 ‘깔창 생리대 소녀’들은 이제 생리대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는지 궁금해진다. 아울러 이 소녀들도 이제는 ‘생리컵’을 알게 됐는지도 궁금해진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 소속 여성 의원들께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대 문제를 한 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린다.

초선 의원들을 응원하며



박남용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7월 1일, 의회로 출근하며 마음속 다짐과 함께 자신에게 주문한다. 선거운동 기간 주민과 했던 약속을 잊지 말고 소통을 통한 공감을 완성하자고 말이다. 선출직으로 입성하는 모든 사람의 자기최면일 것으로 생각한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으로 취임식, 업무보고, 지역 현안 사업, 공약사항 점검, 의회연구단체 결성, 공직자재산등록, 선거비용 정산 및 확인, 제2차 추경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포괄사업비, 행정사무감사 대비 등을 챙긴다. 거기에 '공부해라, 공부해라'를 주문하는 선배 의원들의 외침에 엄청난 공부까지 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업무시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민원인 방문도 있고 현장 확인도 해야 하고 간담회 일정도 소화하면 엄청나게 여유 있을 것만 같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래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생각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보람을 느낀다.

의원연구실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시계를 보며 가방을 챙기고 나오는 뒀안길에서 작은 사명감도 느낀다.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책임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리기 위함인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갑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요즘, 그런 갑을 논쟁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갑을 논란은 한쪽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다소 있음이 우려스럽고 오히려 갑·을, 을과 갑이 혼재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럽기도 하다.

서로의 입장 차는 있지만, 상호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적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관행보다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천하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하며 상호 조금만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젊은 초선 의원들의 활동에 기대하며 박수를 보내고 그것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지켜보면 어떨까 당부한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떨어져서 말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두면 될 것이다. 잘할 것이다. 나 또한 어느 때보다 창원시의회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



지렛대로 창원시청을 들 수 있을까?



손태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필자는 어린 시절 공휴일이나 방학 때면 어김없이 밭에 나가 밭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돌맹이를 골라내는 일을 해야만 했다.

작은 돌을 주워 모아 소쿠리에 담아 밭 가장자리로 나르는 일은 꽤 힘든 일이기도 했다. 이것보다 더 힘들고 난처한 일은 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쇠스랑이나 팽이로 파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돌들이 곳곳에 묻혀 있었다. 이럴 때면 납작한 작은 돌맹이 하나와 튼튼한 막대기를 이용했다.

지렛대 원리다. 깊이 박혀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큰 돌맹이가 막대기 끝에 내 체중을 올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렛대로 창원시청은 들어 올릴 수 없을까?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이전의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는 청사를 새로 짓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통합 이후 심각한 갈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임시청사로 시작한 현 창원시 청사는 증축과 별관 청사를 신축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사무공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르지 못하는 주차 공간 때문에 시청 인근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들을 속 시원히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얼마 전 낡은 시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군민 모두 불편을 겪어 오던 남해군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4차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숙원을 풀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공공건축물이 노후되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개선을 하지 못하는 곳에 공공업무·민간상업·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을 위탁받아 자금을 조달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청사 준공 후 청사의 소유권과 임대(분양) 수입은 자치단체에 기속되며 개발비용은 LH에 장기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는 LH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이 주민센터와 연결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통합하여 신당동주민센터와 구민회관, 중구 문화원,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경기도의 정부시는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여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시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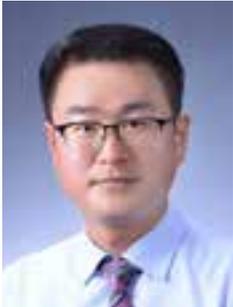
또한 구리시 여성·다문화가족회관, 동대문구청 다사랑 행복센터 등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의 재정부담도 줄여 나가고 있다.

창원시는 시청사뿐 아니라 의창구청과 성산구청은 동주민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마산종합운동장 내 올림픽기념생활관 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들을 언제까지 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 의창구청은 3년 전 부지 확보와 실시설계까지 마쳤다. 당시 250억원 정도 예정되었던 예산이 지금은 3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계속 미루어 둘 일은 아닌 듯하다.

창원시 청사는 지금부터 새 청사 건립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경쟁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지렛대로 창원시청을 한번 들어 올려 보자

창원특례시는 또 뭐꼬?



박남용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창원특례시는 또 뭐꼬? 얼마 전부터 만나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다. 특히 광역시, 광역시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특례시는 또 뭐냐는 것이다.

특례시라 함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명칭을 부여받는다. 또,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라고 하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령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주장하는 특례시는 지방분권의 핵심전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자치분권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특례시가 되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또,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권한 강화, 조직과 인사의 독립성 확대, 읍면동의 혁신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활성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통한 자치단체 간 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 되면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지난 2014년 7월, 안상수 전임시장의 광역시 높음에 우리 창원시민과 관계 공무원은 혼이 빠졌다.

경남에서 울산을 분리하여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법과 제도적으로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혼자(?)만 몰랐던 것이었다. 아니 억지를 부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창원특례시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물론 지정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창원광역시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 광역시를 추진하며 집행된 예산, 조직, 시민에 대한 진정한 반성 등을 신문과 언론을 통하여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창원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미 당사자는 떠나고 없지만, 창원시 차원에서 현 시장이 사과하고 특례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는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이 기회에 해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원시의회를 존중하고 정확한 비교분석자료를 통하여 설득하여야 한다. 초선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역시 광역시에 대한 후유증을 아직도 호소하고 있다. 그것은 창원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생각한다.

셋째, 경상남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울산이 경남에서 벗어나고 창원도 경남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집권 여당 소속의 단체장이라고 해도 편하지 않을 것이다.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허성무 시장 임기 내에 특례시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열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시민의 공감대 형성, 신속한 숙의과정 조성, 광역시와 특례시의 비교분석과 충분한 설명,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전 시민이 희망하는 정상적인 특례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례시가 뭐꼬?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는 대목이다.



창원과 가야



이 해 련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시월의 끝자락에 창원시의회 문화역사연구회 동료 의원님들과 창원의 역사 유적지 답사 길에 올랐다.

통합 이후 창원의 지역 역사에 대해 바로 알고 지역 문화재 및 유적들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이 중요한 또 하나의 갈 길이라는 점에 뜻을 모아 역사문화연구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번 1차 답사는 마산을 중심으로 한 유적지 답사로 현동 유적 발굴 현장, 진동 유적지, 진해 현감, 합성동 유적지를 답사하였고, 다음 2차 계획으로 창원과 진해의 유적지를 답사할 계획이다.

실제 발굴 현장에서의 설렘과 감동은 모두의 더 큰 관심을 불러왔다.

창원은 가야국의 한 변방이었을까?

가야국 역사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에서, 현동의 발굴을 통해 가야인들이 살아온 생활 유적들은 가야사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귀중한 유물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동 유적지의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진해 현감을 지낸 이제마를 비롯해 안인수(안중근 의사의 할아버지) 등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들의 관심을 더욱 끌어내게 하였다.

합성동 유적지에서는 대형 고분들을 만나게 되어 설레기도 했지만, 도굴 현장이 생생히 남아 있어 마음의 무거움이 더해졌다.

유적지에서 온몸으로 느껴본 이 땅의 유구한 역사 앞에서 잃어버린 창원의 가야 역사 재조명을 통해 가야의 미확인된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를 토대로 기본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초자료 수립과 학술대회, 세미나, 유물 전시회 등을 개최해 창원시민들과 공유하고 널리 알려 역사가 무관심 속에 묻혀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06만의 거대한 도시로 재탄생한 창원시는 생생한 지역 역사를 발굴함에 따라 창원의 역사와 생활문화가 한 뿌리로 성장 발전되어온 지역임을 역사 정립과 유적지, 유물 등을 잘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창원 역사의 이해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

진해교육의 바람직한 이해



정순욱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교육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최소 세 번 이상은 고민을 해야 한다.

요즘 진해인재스쿨 교육 보조금을 두고 설왕설래다. 지극히 개인 주의적이고 발생의 동기를 무시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다시 지역적 퇴보를 만드는 과정이며 스스로의 잣대에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진해는 교육적 열기가 높고 인재가 많이 배출된 곳이다.

자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은 좀 더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산과 진주 등으로 유학을 보내 수많은 인재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교육은 열악해졌고 인구 유입도 전무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처럼 교육적 기반이 인구 유입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진해는 변변한 고등학교가 없어 진학률이 낮아지면서 한때는 서울권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진해인재육성 쇼크’가 발생한 시기가 있었다.

진해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진해 인재 육성에 자책하면서 시작한 10여년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기득권을 가진 창원에서 탄지를 걸고, 발생의 원인도 모른 채 자신의 잣대에서 보편적 교육 운운하며 지역 인재육성 방식을 폄하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진해 인구가 20만명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 진해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있는가? 창원·마산처럼 기숙형 고교도 턱없이 부족하고 창원처럼 특수목적고도 없다.

그나마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 용원고에서 가끔 용 냐다고 하지만, 졸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진해교육은 낙후됐다. 교육 환경의 차별을 자식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해 학부모들은 새벽에 자녀를 깨워 통학시키고 있다. 자녀의 늦은 귀가시간까지 마음을 줄이며 노심초사다.

매일 2~3시간을 통학으로 소비하고 식사조차 못해 진해학생들은 정신과 체력적으로도 창원·마산지역 학생에 비하면 우울하고도 비현실적 생활을 하고 있다.

사교육 또한 창원과 마산에 집중돼 진해지역 학생들은 교육적 차별을 느낀다. 자신의 지역에서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혜성’ 이야기는 아니란 생각이다.

지역적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잣대로 인재 육성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진해지역에 기숙형 학교나 특수목적고 설립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기후 변화 예방도 시민과 함께



이 해 련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먼 산의 단풍이 만추의 화려한 외출을 유혹하기 충분한 나날이다. 벗나무들은 울긋불긋 줄지어 오가는 이들의 마음에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한다. 사계절이 주는 자연의 선물들은 인간에게 주는 축복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계절이 점점 사라지고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이 먼저 외치며 표현하고 있고,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난여름은 역대 최고의 기온을 기록하며 기나긴 무더위로 힘들었던 기억과 폭염으로 열대야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한 기억이 생생하다. 열섬현상으로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의 노력과 전문학자,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후 변화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제1회 녹색커티포럼 발표 자료 중 폭염위험성지도(국민안전처 제공)를 보면, 창원시 전국에서 폭염위험도지수가 1위로 가장 높게 나왔다.

말하자면, 폭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도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는 열섬현상과 기후 변화에 대해 더욱 적극적 방안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공원녹지공간 확보, 옥상녹화사업, 도로색 (아스팔트) 변화, 포켓정원, 수변공원, 하천 살리기를 통해 도심 기온 낮추기에 노력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온 상승으로 바다와 수산 분야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산소 없는 물덩이 현상과 어획량 감소, 아열대 어류 증가 등은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지성 폭우로 인한 홍수, 긴 무더위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등 다양한 피해가 점점 잦아질 것이다.

기후 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시 차원의 실천 방안 제시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방치해둬서는 안된다



정순욱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목적지만 향해 걸어가다 보면 무심코 조금 전 나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굳이 생각을 해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점연적은 웃음이 나곤 한다.

역사는 의미 있는 흔적이다. 단지 우리 생각이나 기억을 잇을 때가 있다.

역사는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할 기억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역사를 잊고 지나다 보면 그 흔적은 방치돼 망가지고 끝내는 소멸돼 버린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소멸된 소중한 역사가 늘어나고, 그중에 운이 좋아 기억되는 부분마저 더듬고 다듬어야 비로소 보이고, 의미에 감탄을 하는 것들이 많다. 그때를 소환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어렵다.

역사성이 망각된 기억은 소설로 남겨도 역사적 가치가 없는 골동품에 지나지 않는다. 구전으로 내려와 흔적만 남은 역사를 책무로 여겨 지금이라도 찾아서 지켜야 전통성을 이어갈 수 있다.

진해는 여러 역사의 흔적을 두고, 근대사에 수없이 돈을 투자하고 있다. 가끔은 치욕의 역사를 미화하며 숨긴 채 욕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한다.

그 예로 웅천에는 읍성을 중심으로 관아가 있었고, 객사가 있었다. 대동여지도에는 웅천읍성지(경남도 기념물 제15호) 안에 2개의 우물이 기록되어 있다.

시골집 담벼락에 붙어 지나는 이의 무관심에도 아직 샘물이 용솨움 치고 있는 관정은 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창원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얼음을 만들어 웅천관아에 얼음을 조달한 ‘웅천빙고지(시도기념물 제185호)’가 있는데, 이어주는 길도 없이 산 중턱에 덮개가 훼손이 돼 낙엽으로 덮여 있다.

웅장함과 화려함을 알려주는 웅천 객사의 천장 쌍용도가 있었다는 문헌은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이는 없다. 그중 한 쌍은 어디로 갔다는 추측만 있고, 나머지 한 쌍은 웅천에 있는 주자정동 대문의 틀 속에 들어가기 위해 뿔과 꼬리를 훼손해 단청과 비늘로 쌍용이라 짐작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웅천에는 제포성지(경남도 기념물 제184호), 웅천도요지, 웅천객사, 안골 왜성(경남도 문화재자료 제275호) 등 많은 유적지가 존재한다. 경술국치로 일본이 국권을 침탈하고, 웅천 중평리에 해군 기지를 만들어 ‘진해’로 이름을 지었다.

근대사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와 유적지, 유물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근대사는 관광자원화하면서 유물을 방치해 두는 것은 후손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느낀다.

시기를 놓쳐 흔적이 지워지면, 역사를 잇은 미래 없는 치욕의 역사만 관광화 될 것이다. 서둘러 창원시는 고대사 발굴 및 고증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자랑스런 지역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

제7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8. 7. 1. ~ 7. 2.) 2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의장 직무대행 (다선연장 의원)
- 처리결과 이찬호 의장 당선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명을 선출하기 위함

제7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제3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 선임을 위함

부의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김장하 부의장 당선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1명을 선출하기 위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이치우,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 당선
- 제안이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을 선출하기 위함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위원회명	위원정수	위원장	추천위원	비고
기획행정위원회	11명 이내	손태화	백태현, 김경수, 최영희, 주철우, 백승규, 이천수, 구점득, 공창섭, 김태웅, 김상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11명 이내	김순식	이헌순, 전병호, 문순규, 박선애, 김상현, 이종화, 최은하, 이우완, 심영석, 임해진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0명 이내	노창섭	권성현, 김장하, 김우겸, 지상록, 전홍표, 진상락, 김인길, 이치우, 최희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11명 이내	이해련	한은정, 박현재, 박남용, 김경희, 정길상, 박성원, 김종대, 조영명, 정순욱, 박춘덕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8. 7. 17. ~ 7. 26.) 10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

- 제 의 자 노창섭·한은정·박춘덕 의원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공장 정상화를 위해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았고,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으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차 3차 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그러나,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하여 774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8,10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77억원의 과태료를 내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음
 -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국민혈세인 정부의 지원금은 받아내면서 불법은 해결하지 않는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처벌과 부당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 복직 및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8,100억원의 정부지원 중단 촉구를 결의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 창원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법률에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우리시 자치법규 중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순화하고 맞춤법을 정비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의 안식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5일의 출산 전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으로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이 변화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인식하고 체감하도록 하는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53개 면·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고 함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완료보고(2018.5.31.)에 따라, 기존 의창구 용동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 중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구간에 대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특례를 연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8. 6. 19. 시행)에 따라 구청장 3·4급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통합 후 8년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7호, 시행 2017.8.29.)의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남성대와 여성대의 성별격차를 없애 정원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안건 처리현황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 등 4건)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시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매시장 휴업일을 추가하고 상위법에 맞게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며,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표준하역비 대상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 9. 4. ~ 9. 28.) 25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비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 의 자 노창섭의원 등 11명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

- 제 의 자 문순규 의원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실효(일몰제)될 예정임
 - 그러나, 공원일몰제로 인해 창원시의 경우 전체 공원면적의 50.54%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만 1조1천억원이 예상됩니다.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사실상 창원시 자체 재원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한 일임
 -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무임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방안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건의함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병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 제 의 자 박춘덕 의원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 진해 신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항만 개발을 위해 당초 사업비 16조 6,823억원을 투입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가덕도 북안 및 진해 웅동, 용원, 제덕만 일대 1,975㎡에 부두 44선석과 배후단지 944만㎡를 조성 중에 있음
 - 신항의 부두 면적은 부산이 42% 창원이 58%이며 항만배후부지는 부산이 18% 창원이 82%로서 신항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진해가 70%이상으로 사실상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신항 랜드마크사업으로 추진중인 진해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비 1,013억원으로 2016년 착공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2년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설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음
- 부산항만공사는 2017년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주)한국항만기술단과 (주)더펜건축사무소에 LNG 벙커링 당초 조성지역인 가덕도 북안에서 진해 연도지역으로 변경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리운영방안 수립과 사업시행방안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함
- LNG 벙커링은 국내 최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고와 저장,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14기 이상이 설치될 것임 이미 국내에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를 비롯하여 6곳에 LNG 인수기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지속적인 민원과 잔류염소누출과 어업피해와 운무발생으로 인한 환경 피해소송과 누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신항 조성 기간 내내 생활터전을 내어주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서라도 연도의 랜드마크사업 부지와 중복되는 LNG 벙커링 설치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을 창원시의회는 107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촉구 결의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 제 의 자 의원 44명 전원 공동발의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이상 도시 뿐 아니라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재정상의 비효율의 초래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결산내용을 승인받고자 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7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수립하여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법령상 통합(대행) 근거 없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정 조정위원회 본연의 목적인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검토에 집중하기 위함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의 신뢰도 향상을 기하려고 함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9년(20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 조례에 신설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은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을 명확히 열거하고, 현행 당연직 위원장을 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도록 변경하여 외부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될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려 심의회의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중심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함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근린공원용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반송공원)에 대한 럭키, 대동APT 주변 반송공원 조성사업 완료
 - 근린공원용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대상공원)에 대한 외동지구 개발사업(2공구) 완료

주요안건 처리현황

-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용지에 대한 가음정공원(배드민턴장, 청소년파크) 조성 사업, 대상공원(중앙동 지압보도 및 체육시설) 조성공사 완료
- 근린공원용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주거 및 완충녹지)에 대한 가음정지구(3공구) 개발사업 완료
-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주)동양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의 통일성을 기함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의창구 동읍 본포리 지역의 국지도 60호선 4차선 확장과 국지도 30호선 연결 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기존 본포와 가곡마을이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이 야기되어 지역 민원 해소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창구 동읍 본포리에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 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이 조례는 새 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의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시민 주권시대 창의적 민관 협치 실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이 조례는 훈령으로 규정한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내실 있는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9호, 2016. 8. 2., 시행 2016. 8. 4.]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행 기회의 확대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복지관 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권익을 도모하고,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의 적용 기준을 신설하여 다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해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함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없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재난,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 제 의 자 각 상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과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8. 10. 24. ~ 10. 31.) 7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

- 제 의 자 박춘덕 의원 등 11명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 1999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의 취지인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한다.”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현재의 창원시는 인구의 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 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 가능성 상실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음.
 - 창원시 시가지를 둘러싼 환상형 산악지대 등 도시의 물리적 형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제도적 장치로서 도시 내 녹지대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으며 국방 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상실과 제도의 취지가 불 부합하며 여타 제도적 장치로서 도시의 녹지대 및 특정시설 보호가 가능하므로 창원시 개발 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창원시의회는 106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건의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

- 제 의 자 전병호 의원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수소산업관련 기업이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창원시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창원지역 선정 건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제 의 자 의원44명 전원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던 시민 항쟁으로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4대 민주화 운동으로 꼽히고 있음
 -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4대 민주화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관련자 명예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헌정사에 미친 역사적 의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
 -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항쟁 발발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함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 제 의 자 한은전, 노창섭, 박춘덕 의원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 경상남도과 김해시는 김해시민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의 이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비음산터널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창원시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의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결정임.
 - 비음산터널의 추진은 김해복합스포츠단지의 특혜시비, 의창·성산구의 교통량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창원시민의 삶의 질 저하, 김해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임
 -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창원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남도와 김해시의 일방적인 비음산터널 추진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힘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기획예산실 소관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도시개발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균형발전 도모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를 위해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그간 시의 사업 여건 변화로 당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박춘덕, 이천수 의원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주민보호와 예방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기하며,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함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경제국 소관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문순규 의원 등 3명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상품 또는 제품 구매촉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의 경제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지역경제 발전 방안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산업 및 사회적 경제 육성과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경제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지역경제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창원경제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마련에 따라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은 창원 경제 혁신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함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경 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이현순 의원 등 4명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최근 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함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위원회의 설치·운영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심사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위로금의 환수 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을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 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2000년 2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임
-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소규모 시설로 지역사회에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서 청소년에게 일상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나,
-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은 농촌지역인 웅천동에 위치하여 청소년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접근성도 떨어져 이용이 적고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1명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전문 인력과 다양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청소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용원 등 동부권 지역의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함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1.)」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확대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함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광역화 사업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광역화)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70%)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설치비 부담이 완화되고, 처리시설 대형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우리시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 입지 조건도 김해시(장유) 지역 설치로 인하여 진해권역의 혐오시설 감소 등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함
 - 또한, 광역화사업은 현재 1일 50톤 규모의 진해자원회수시설이 시설노후화로 인하여 대체시설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사업 추진 시 우리시 재정투입 최소화, 혐오시설 감소, 환경부의 정책방향 부합 등 이로온 점이 많은 사업임
 - 참고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은 경북 안동시에 11개 시군이 참여하여 설치중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 전국적으로 18개 사업 있으며, 경남에서는 통영시·고성군이 현재 광역 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음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해양수산국 소관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9년도 창원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위탁 운영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며, 위탁 운영에 따른 보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코자 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관광문화국 소관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총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찬성의견
-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52호(2018.04.26.)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에 의거 마산회원구 구암지구와 진해구 총무지구를 공모 신청하였고, 2018.08.3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선정됨
- 마산회원구 구암1동 일원의 노후 주거지와 진해구 총무동, 중앙동, 여좌동 일원의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총무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함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제 의 자 박춘덕, 박남용 의원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법제처 선정 조례규제개선 과제에 해당되어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고 함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주차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후·고장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며,
- 개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함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8. 11. 26. ~ 12. 20.) 25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의장에게 보고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

- 제 의 자 진상락 의원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내서IC는 2018년 현재 1일 주말 45,000대의 차량증가로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이 구간 남해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남해본선 확장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겨우 편도 1차선이 늘어나는 정도에 불과 하게 되어 이 또한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왕복 6차선 확장이 아닌 진주, 산인과 동일하게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함
 - 따라서, 남해고속도로 본선이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되면 남해1지선, 국도, 마창대교 통행도 원활하게 소통될 것이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해1지선의 관리권을 창원시에 이관하고 내서IC를 개방하여 통행료를 무료화 할 수 있음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 제 의 자 손태화 의원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대만은 1999년 중부 난터우(南投)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2,415명이 숨지는 지진 대참사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1월 24일 국민 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하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안건 처리현황

-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원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및 예산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제기한을 연장하려고 함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이순신리더십 체험관 완공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료의 징수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사항 등 이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고 함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함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지원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종합교육포털사이트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용료의 수익자 부담 비율을 조정하며, 이용료의 부과 항목을 정비하는 등 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함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함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의 자 한은정, 이종화, 최은하, 최희정 의원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직무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기구를 신설, 통폐합 등 조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기구를 개편하며, 현장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김우겸, 지상록 의원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연구 실시, 청년의 참여와 고용확대, 청년공간 및 청년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의 자 주철우, 김상현 의원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공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으로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자활기금 운용의 폭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함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출산축하금 인상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장전입 등으로 발생하는 출산축하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함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고 함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 10. 24.)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 삭제 및 지원 내용 수정, 용어 정비 등 조례를 현행 제도에 맞춰 정비하려고 함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 제 의 자 지상록 의원 등 5명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영농 중 발생하는 각종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절차를 마련하여 폐농약류 등의 처리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함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7년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시 지적에 따라「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상 기금의 용도를 조례 본문에 규정하지 않고 부칙으로 명시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및 용도를 조례 본문에 정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01년 이후 동결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물가상승 등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원순환기본법」시행(2018.1.1.)으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신설 등 폐기물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함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를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에서 정한 전국 기준 무게로 변경하고 소싸움대회 출전 신청서류 간소화 및 소싸움대회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적절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함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 개선과제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조례 내용 중 공무원을 골프연습장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운영에 있어 경쟁성이 배제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하여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하며, 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 연령을 낮춰 신규단원 위촉을 활성화시키며, 시립예술단의 외부공연 출연에 대한 출연료 세입 근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유료공연에 대한 무료입장권 관리를 명확히 하려고 함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에 따라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신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용도지구의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일부개정 에 따라 조례 중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소액 도로점용료의 부과 기준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함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송분야의 배기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체계적인 보급지원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함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창원 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

- 제 의 자 김경수 의원
- 처리결과 원안채택
- 제안이유 창원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업황의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제조업을 살리지 못하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과 고용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공무 여행 시 지급되는 여비에 대하여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의 자 의 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의 기능이 새로 설치되는 창원경제혁신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통합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한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해 설치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공론화위원회 등 신설위원회의 일부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존속기한 만료 전 존속기한 연장조항 신설 등 해당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려고 함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마목의 삭제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함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전문가 채용을 위한 채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를 개정하려고 함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의 자 창원시장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심의 활동》

>>> 구성개요

- 일 시 : 2018. 9. 4.(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위 원 수 : 9명
- 안 건 명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주철우	김인길	박선애, 백태현, 이우완, 문순규, 전흥표, 김경희, 김종대	

>>>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 (2018.09.04.)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3차 회의 (2018.09.28.)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 심사결과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산심의 활동》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금 액	증감율	
계	계	2,987,186,842	2,700,280,418	286,906,424	10.63%
일반회계	일반회계	2,371,464,092	2,139,100,000	232,364,092	10.86%
특별회계	특별회계	615,722,750	561,180,418	54,542,332	9.72%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987,186,842	100%	2,700,280,418	100%	286,906,424	10.63%
일반회계	2,371,464,092	79.39%	2,139,100,000	79.22%	232,364,092	10.86%
특별회계	615,722,750	20.61%	561,180,418	20.78%	54,542,332	9.72%
공기업특별회계	209,700,210	7.02%	200,959,789	7.44%	8,740,421	4.35%
기타특별회계	406,022,540	13.59%	360,220,629	13.34%	45,801,911	12.71%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987,186,842	100%	2,700,280,418	100%	286,906,424	10.63%
지방세수입	706,350,000	23.65%	706,350,000	26.16%	0	0.00%
세외수입	533,148,526	17.85%	455,555,239	16.87%	77,593,287	17.03%
경상적세외수입	418,084,844	14.00%	408,677,186	15.13%	9,407,658	2.30%
임시적세외수입	115,063,682	3.85%	46,878,053	1.74%	68,185,629	145.45%
지방교부세	442,832,000	14.82%	322,832,000	11.96%	120,000,000	37.17%
조정교부금등	148,700,000	4.98%	183,000,000	6.78%	△34,300,000	△18.74%
보조금	871,338,102	29.17%	736,783,659	27.29%	134,554,443	18.26%
국고보조금등	663,310,093	22.21%	570,335,994	21.12%	92,974,099	16.30%
시·도비보조금등	208,028,009	6.96%	166,447,665	6.16%	41,580,344	24.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4,818,214	9.53%	295,759,520	10.95%	△10,941,306	△3.70%
보전수입등	197,253,678	6.60%	198,098,191	7.34%	△844,513	△0.43%
내부거래	87,564,536	2.93%	97,661,329	3.62%	△10,096,793	△10.34%

예산심의 활동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993,148,340	100.00 %	2,879,958,104	100.00 %	113,190,236	3.93 %
일반공공행정	101,715,937	3.40 %	102,248,362	3.55 %	△532,425	△0.52 %
공공질서및안전	48,349,162	1.62 %	47,246,590	1.64 %	1,102,572	2.33 %
교육	48,342,629	1.62 %	47,485,020	1.65 %	857,609	1.81 %
문화및관광	339,323,653	11.34 %	333,783,066	11.59 %	5,612,587	1.68 %
환경보호	329,914,014	11.02 %	328,129,236	11.39 %	1,784,778	0.54 %
사회복지	788,647,356	26.35 %	770,112,583	26.74 %	18,534,773	2.41 %
보건	44,644,992	1.49 %	42,438,627	1.47 %	2,206,365	5.20 %
농림해양수산	131,037,735	4.38 %	99,294,203	3.45 %	31,743,532	31.97 %
산업·중소기업	117,050,488	3.91 %	111,981,319	3.89 %	5,069,169	4.53 %
수송및교통	292,684,907	9.78 %	258,327,904	8.97%	34,357,003	13.30%
국토및지역개발	253,689,283	8.48 %	246,368,272	8.55 %	7,321,011	2.97 %
예비비	64,066,652	2.14 %	63,211,398	2.19 %	783,254	1.24 %
기타	433,681,532	14.49 %	429,331,524	14.91 %	4,350,008	1.01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심의 활동》

>>> 구성개요

- 일 시 : 2018. 11. 26.(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위 원 수 : 9명
- 안 건 명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박춘덕	백승규	박선애, 이천수, 이종화 이현순, 권성현, 김우겸, 박성원	

>>>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 (2018.11.26.)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제3차 회의 (2018.12.18.)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 심사결과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제7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8.09.20.(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 및 주차난 관련

Q 질문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동안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A 답변 내서IC 요금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나 도로공사 입장 때문에 난감함. 그렇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무료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Q 질문 내서읍 삼계지역 주차타워 건립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삼계리 32 4번지, 33 6번지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 용도는? 이곳에 주차타워 건립 방안은? 이 부지에 주차 타워를 지어 인근도로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자 하는 여론이 강하다. 3층 4단의 24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짓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3년 전에 건립한 주차타워에 대해 경남개발공사가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A 답변 삼계리 32 4번지, 36번지 소유자는 경남도이며 용도는 주차용지다. 이곳엔 주차타워 건립은 공감하지만, 당장 건립하기에는 토지 매입비용 등으로 어려움. 그래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며 도와 협의 중임.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및 진해 신항 개발사업 관련

Q 질문 2009년 12월 웅동지구 개발사업 시작 후 지금껏 사업자 선정을 못하는 원인은? 신항 중심인 연도에 LNG 벙커링을 설치하려는데 창원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 답변 웅동복합관광단지는 투자자들의 토지 사용기간을 준공시점에서부터 30년으로 변경하든지, 매각이 요구된다. LNG 벙커링 터미널은 시에서도 절대 반대 입장임.

Q 질문 진해항 1,2부두·속천항 개발사업 진해항은 2020년 12월 기간시설물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친수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속천항 일대 개발을 위해 진해루를 중심으로 개발은? 진해항 시설물 중 물류창고는 2개 회사가 2020년까지 사용중이다. 그중 컨테이너 배후부지는 해양수산부고시를 통해 항만구역에서 제외 처리되었다. 진해항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장애요인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A 답변 진해항의 운영계획 변경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음. 진해루 앞 공유수면은 진해항 및 속천항으로 지정돼 필요한 사업의 허가권자인 해수부, 경남도와 사전협의 등 검토 중에 있음.



노창섭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비음산터널 개설 입장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보조금 감사 관련

Q 질문 김해시와 경남도가 비음산 터널 개설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 온다면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A 답변 창원시 시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쯤 나올 예정임. 환경이나 교통,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음

Q 질문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업체들의 비리가 발견된다면 창원시는 업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시내버스 채용비리 등 창원시가 감사 진행중에도 노·사측에서 비리를 고발한 기사를 회유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 등 부당 노동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창원시의 조사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창원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답변 업체들이 위법이나 탈법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적용해 법적으로 대응하겠음. 지금 특정감사 기간인 만큼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환수또는 지급에 대한 제한,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법대로 조치하겠음.

제8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8. 12. 12.(수)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 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마산문화관 명칭 노산문화관으로 환원

Q 전국의 유명 문학관이나 음악관, 미술관이 지역 명칭을 쓰지 않고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관이나 미술관 음악관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음. 마산문화관의 최초의 건립 당시 명칭이 노산문화관이었음. 도시의 경쟁력과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산문화관 명칭을 '노산문화관'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한가?

A 마산문화관은 2002년 건립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금의 명칭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만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Q 예술가는 정치인이나 사상가와는 달리 작가의 예술성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정치적 잣대를 놓고 문화예술적인 도시 경쟁력차원에서라도 다시 재조명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공과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등은 후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장 개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최 영 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보조금지원을 특정학교 중심으로 아닌 고르게 지원하도록 개선 등

Q 고교 교육 보조금 지원공평해야= 창원시가 주관하고지원하는 관내 47개 고교의 교육비 보조금지원이 특정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의 교복 무상 지원은 보편복지로 하는데 교육비 지원도 일부 학생들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학생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학부모 및 교육계의 많은 의견을 참고로 기초반과 중급반의 비중을 높이고 인재스쿨과 외곽 고교의 지원은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Q 시는 교복은 무상으로 보편복지로 제공하는데 교육비 지급은 전 시장의 시책을 계속하고 깊 또한 형평성조차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보편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창원시가 인재스쿨 지원 정책을 공평하게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A 일부 보편적인 교육비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 완벽하지 못했던 정책은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모든 정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각 계층의 여론에 의해서가 지원하게 됐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에서는 앞으로 공평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



노창섭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마산회원구 봉암 유원지 내 예식장 건축 특혜 의혹 관련

Q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특혜 의혹= 마산회원구 봉암동 산35-6번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다. 유원지로 지정되면 창원시의 허가 없이는 예식장 개발이 불가능한데 언제 건축허가를 했는지. 현재 공정률은 어떠한지?

A 2017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건축허가 의제처리 되어 지상6층 지하 5층으로 현재 예식장 건축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5%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Q 현재 시민단체 진정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깊 명신개발 측에서 임시 사용 허가나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A 법령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감사와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Q 예식장 건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장님의견해는?

A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개검증을 거쳐 처리하겠다.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

2018.07.17.(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지역 사업들 구체화하고 완성하라

그간 진해지역의 사업들이 검토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선 7기는 웅동복지관 건립, 여좌 돌산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문화원 신축, 명동마리나 항만 사업 등 20여개 사업을 구체화하고 완성해주기 바란다. 특히 진해 하수처리 시설 상태가 심각하다. 즉각적인 진해음식물 처리장 폐쇄와 함께 창원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박춘덕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광암해수욕장 낡은 버스정류소 정비해야

16년 만에 광암해수욕장이 개장해 많은 시민이 찾았으나 버스정류장이 낡고 녹슬어 지저분했다. 녹슨 정류소를 정비해야 한다. 면단위 버스정보시스템(BIS)설치도 필요하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시비가 있는 마산고 옆 소나무 술밭쉼터의 소나무가 시들어간다. 조치해야 한다. 서원곡-오동동교 생태하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성원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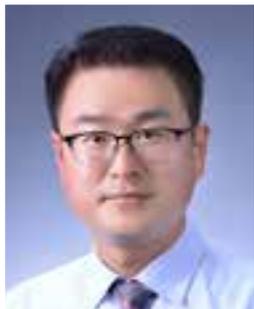


새로운 창원시에 몇 가지 제언한다

소통을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 열린시장실을 폐쇄 또는 개혁해서 시민의 사연을 경청해야 한다. 해외연수중 낮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청소근로자의 낮 근무 전환을 고려했으면 한다.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사회적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제안 받은대로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 제정 등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

주철우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함께하는 제3대 창원시의회를 만들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모두 6·13지방선거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고 '함께하는 행복한 제3대 창원시의회'를 만들어가자. 창원시의회는 유례없이 젊고 신선한 시대를 맞이했다. 44명 의원 중 27명이 초선의원이고, 14명이 20~40대 의원, 평균연령 52세다.

다함께 지혜를 모아 창원시민이 희망하는 새롭고 즐거운 정치로 창원시의회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

박남용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가포고교의 복면 이전을 반대한다.

경남교육청이 마산합포구 가포고등학교의 복면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수가 줄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포고 주변의 공장으로 학습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하지만 이는 학부모, 총동창회, 가포지역민 의견을 무시한 무리한 처사다. 복면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다름 아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길상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2018.07.26.(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창원을 위해 제안한다.

창원시는 1995년에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원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일찍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해 왔다. 이제 사람중심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짜야한다. 평생학습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해 온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도서관 관할 담당부서 일원화 △도서관사업소 내 도서관정책과 신설 △도서관장 및 도서관사업소장에 도서관 전문가 우선 기용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작은 도서관 연차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이우완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위원회로

지금 창원은 한국지엠 사태로 국내 완성차수출과 내수판매가 줄면서 2000개의 부품업체가 경영위기에 처해있고 제조업의 활력저하로임금 근로자는 1만 7000명 감소했다. 지역위기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장은 약속했던 창원형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위원회로 바꾸고, 유관부서 통폐합으로 노사협력관 설치를 구체화하라. 또한, 창원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도 수정해 지역위기사 직접 지원할 상생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길 제안한다.

최영희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제7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09.04.(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민터널 공사 조속시행

진해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제2안민터널’ 공사가 보상비용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보상비용 127억 원이 확보되어 터널 공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진해는 창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항만과 전통적인 자원이 풍부해 인프라 시설 구축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 항만물류의 전진기지를 빼앗길 수 있다. 진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2안민터널의 조기 완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순욱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특례시 조속히 추진돼야

106만 도시 창원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과 재정에서 광범위하고 자율적인 특례시 인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원이 특례시가 되고 항만운영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면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의회가 특례시 추진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특례시 추진특위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특례시 지정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이 법제화 실현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김경희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꽃을 들고 싸우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방안으로 외국인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하자. 불법투기장에는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을 응용해 꽃을 심어 정원을 조성하고, 관광지만이라도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는 예쁜 쓰레기통을 제작해 비치해 놓자. 마지막으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대회를 개최해 쓰레기 투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

주철우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창원시에 최근 5년 사이신생아 출생률이 28% 감소해 보육지원이 실질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을 확충하거나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별 장난감도서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5개구에 각각 설립하면 접근성이 좋아 양육비 절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진해장난감도서관을 분리 운영시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화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웅동지구 개발사업 수정필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기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자가 우수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 소유지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 기부채납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웅동지구 개발협약서 내용 중 기간연장 부분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기간 연장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은 의회 의결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창원시와 의회의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박춘덕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신항 LNG 연도 유치 반대

LNG병커링사업이란 액체의 천연가스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제반 사업이다. 해수부가 진해 연도에 설치하려는 LNG병커링사업은 선진국에서도 안전도가 미입증됐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가덕도 LNG병커링사업을 은밀하게 연도로 변경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대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밝힌다.

심영석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7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8. 09. 28.(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단

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10월 14일 개장,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공업지역으로 입지적 환경이 열악하다. 식자재 주,부재료를 취급하는 점포가 없어 원스톱 쇼핑이 불가능해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 낭비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진상락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공공급식에 GMO 식자재 사용 금지, 친환경 식자재공급 예산 편성

유전자 변형농산물을 지칭하는 GMO의 유해성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제공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 식탁에는 이미 GMO가 포함된 식품들이 온통 점령해 있다.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반드시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순규 의원 | 경제복지여성회



청년정책의 대혁신을 위해

본 의원과 지상록 의원은 공동 대표로 ‘창원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과 복지 증진 방안 등을 대폭 추가했다. 우리 시에는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있다. 센터 운영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빠진 청년이란 데 있다. 현재 청년 기본 조례는 관련 기관들이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이번조례 개정안을 통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한다.

김우겸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창동, 오동동은 문화사업 발굴, 고용기반 창출 등의 도시재생 기법을 발현시키지 못했다. 재생이라는 의미는 르네상스라는 말에서 기원했다. 향후 진해구 충무지구와 마산회원구 구암지구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 기구’ 수립을 건의한다.

전홍표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8. 10. 24.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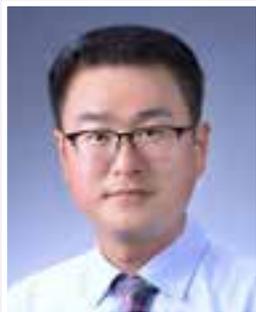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발원지 기념관 건립하자

한국 민주화 원년을 창출한 3·15의거 발원지인 창원에 기념관을 건립해야한다. 3·15의거는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일으킨 순수 시민항쟁운동으로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발원지인 창원에 반드시 기념관이 설립돼야 한다. 오늘날 3·15운동의 발원지인 창원에는 볼품없는 모습들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와를 심었던 3·15선열들에게 죄인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를 제대로 가꿔 역사를 배우고 가치를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박성원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수소산업을 통해 경제 선도하자

최근 정부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해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를 선정했다. 이제 창원시도 미래 먹거리창출과 성장 동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수소 산업을 선점해 전략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정성 지원센터구축 사업과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5분 이내 급속충전이 가능한 수소택시 우선도입 등 수소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박남용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재점검

학생들의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창원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구역(엘로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옐로통학로, 속도측정기 등의 시설물을 옐로존에 포함시켜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횡단보도 등에서 자신의 행위에 몰입되면 이탈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인지해 위험을 알려주는 음성안내시스템이 가미된 어린이 교통안전특별구역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순욱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는 시 산하 주차장 위탁사업을 개선하여 사회적약자의 이익수혜를 공정히 넓혀라 !!

창원시 산하 주차장 위탁사업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에게도 이익 수혜를 넓혀야 한다. 구청의 주차장 위탁은 28개로 일부장애인, 국가유공자단체 운영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위탁이다. 이처럼 독점 낙찰이 가능한 이유는 전년도 입찰 계약액 기준의 기초금액 산정이 정확하지 못해 우월한 자본력을 가진 단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창원 내 등록된 장애인 단체는 21곳이지만 낙찰은 소수만 가져간다. 사회적 약자에게 주차장 위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약자보호라는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최영희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0. 31. (수)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해양시대, 진해 발전전략 수립하자

신항을 조성하면서 진해구민을 고려하지 못했다. 신항에 부산항만공사의 예·부선 이전사업과 고압가스저장시설 이전, 해수부의 LNG병커링 설치와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의 위기가 대표적이다. 진해구민들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창원시는 신 해양시대, 진해 재도약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3대전략으로 첨단 물류도시, 해양관광도시, 행복매력도시를 설정하고 12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포기 수준에 있어 전문가 영입과 항만정책국을 신설하거나 창원항만공사 설립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박춘덕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를 어기며 특정학교에 집행하는 특별과외비 인재스쿨 교육보조금과 장학금의 집행을 개선하고 공모방식을 지양하여 교육수혜를 공정히 집행하라

창원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조항을 공정히 집행해야 한다.

특정학교에 집행하는 특별과외비인재스쿨 교육보조금과 장학금의 집행을 개선하고 공모방식을 지양해 교육수혜가 공정해야 한다. 이미 지역 명문 목적을 달성했으니 열악한 보통학교 학생들에게도 총액을 두고 학력향상과 비교과 지원 등에 공모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으로 같이 입시를 볼 학생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돼야 한다. 특히 장학정관 제4조2항의 일부 조항을 폐지해 지역별 비례가 아닌 형편이 어렵고 학업이 필요한 학생들의 실수요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

최영희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ADHD검사,적기치료 나서야

창원시는 학생과 성인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 일명 ADHD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ADHD를 앓는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2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3곳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외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ADHD 검사자가 0명이며, 2018년 기준 ADHD 관심군은 창원에서 2명, 마산에서 5명, 진해에서 4명에 그치고 있다. 제대로 된 환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김우겸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라돈 측정기 확대 보급해야

지난 5월 라돈 방사능 침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연이어 라돈 아파트, 라돈 생리대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라돈은 적게 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준치 이상 피폭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국민 누구나 손쉽게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대중화 시켰다.

따라서 창원시도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동까지 확대 운영해 측정기를 무상 대여해야 한다. 창원시의 철저한 방사능 물질 관리 및 방사능 측정기의 주민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영석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 11. 26. (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로봇특구 지정을 통한 창원시의 미래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창원의 미래먹거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능형로봇특구' 지정을 신청할 것을 제안한다. 창원시에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로봇테마파크, 로봇연구개발센터(R&D센터), 로봇전문컨벤션센터, 지능기계센터, 재료연구소 등의 기관과 창원국가산단 내 기계산업 등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창원시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능형로봇특구'를 정부로부터 지정받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다.

김종대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4월 11일을 4.19혁명의 발원일로 지정합시다.

3·15의거와 4월 혁명의 거대한 두 역사적 사건의 태동지가 우리 창원시라는 것은 시민의 자부심이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는 현재 경상남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주변 부둣가는 삭막하고 지저분해 김주열 열사의 원혼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김주열 열사 시신을 인양한 그 곳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4월 11일을 4·19 혁명의 발원일로 지정하기를 요청한다.

박성원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 최근 5년간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에는 2만6713건으로 51.9%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사망자 수도 2013년에는 737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848명으로 5년 사이에 100여 명이 증가했다. 이런 통계로 볼 때,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제도화를 위해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종화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달래는 것부터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0년 7~9월 부산·마산·진주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3400여 명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 헌병대, 지역경찰·형무관에 의해 불법으로 희생됐다. 마산형무소에서는 최소 717명의 국민보도연맹원이 총살되거나 구산면 앞바다에 수장됐다. 이런 억울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을 건립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후세들에게는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전 홍 표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조속한 완료 촉구

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회성동 396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58만500평방미터를 해제해 공공행정기관유치 및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총 70만69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 36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창원시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조속히 자족형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으로 침체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 활성화의 연결고리로 만들자.

임 해 진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수 전문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인사정책을 바라며

전문 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로 극대화하는 인사를 바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더 심한 소수 전문 직렬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공무원 소수직렬은 잘 알다시피 행정직이 아닌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보건, 토목, 건축 등 52개 전문직을 말한다. 소수직렬은 직급이 대체로 낮고 현 직급 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문직이 갈 수 있는 부서의 경우 해당 정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채워 전문가들이 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주 철 우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2. 11. (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의회, 거제시의회 등 많은 의회에서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추세다. 100만 도시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때다. 이를 위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제안 드린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8조(표결방법) 제1항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해 가부를 결정한다’를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로 개정하고, 제51조 (회의록 작성) 제1항 11호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수, 기명·호명 투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드린다.

한은정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청소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모든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장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3개소 밖에 없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 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귀가를 설득하거나 장기생활시설로 안내하는 기능을 담당할 곳이 바로 현재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단기쉼터다.

이제는 가출청소년이라 하며 범죄시하던 과거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온정이 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 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타 지자체에 비해 창원시는 진해군향제(56회), 마산가고파 축제(18회),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7회), 다문화 축제 MAMF(13회) 등 많은 축제자산이 있다.

이들 축제 중 진해군향제, K-POP월드페스티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창원시 3대 축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우선 창원시의 3대 축제는 진주유등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김제지평선축제와 같이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이용한 축제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 세계인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전홍표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제안

창원시 박물관 건립사업 필요성과 박물관 운영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안을 드린다.

현재, 우리 창원시는 마산박물관, 진해박물관, 창원민속박물관, 웅천도요지전시관이 있지만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106만 창원시의 역사를 알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더 늦기 전에 창원시도 역사와 규모에 맞는 박물관 건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창원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수 만점이 넘지만 몇몇을 제외하고, 타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다. 현재 발굴조사하고 있는 현동 고분군의 2000여 점이나 되는 유물도 곧 김해박물관으로 이관된다. 차후 박물관을 짓는다하더라도, 우리는 빌려와서 전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민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멋진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최희정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자체투자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운영개선 촉구하며

2018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7회 개최했으나 1차 회의(2018년 2월 27일)만 회의식으로 개최했고 2차부터 7차 회의까지 모두 서면으로 심의했다.

심의위원들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은 질의가 5건, 회의록 기준 집행부 답변 포함 7쪽 분량에 그쳤고 66건 지방보조사업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안은 1건의 질의에 그친 채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성 강화와 심의기간 연장 및 더 상세한 심사자료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자체투자심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심의를 위한 사전교육 일환으로 ‘(가칭)사업심의회고 운영’을 제안한다.

김우겸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유기견 보호소의 테마공원화

1991년 7월 동물보호법 제정으로 동물학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개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마산, 진해, 창원에 각 1개소씩 모두 3개소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보호소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치와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우리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유기견테마공원을 조성해 유기견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시켜야 함을 강조 드린다.

지상록 의원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무상 교복지원 모두가 행복하다면.....

시대 흐름에 따라 학생들도 옷을 혈령하게 입지 않고 꼭 맞게 고쳐서 입는 것이 유행처럼 됐다. 교복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1년 동안에도 쭉쭉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복은 불편한 옷일 수밖에 없다. 많은 학교에서 등교를 한 후엔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이제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은 없을까? 고민을 해야 한다. 얼마 전 모 중학교에서 생활복처럼 바뀐 교복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환영받은 기사도 있었다.

우리지역 중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로 입학할 수 없고, 바로 산업현장으로 가기위해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들이 소수라고 눈감아서는 안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에게도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점득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 12. 20. (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제대로 준비하자

2018년 창원특례시 출범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도 주민자치원리의 실질적 제도화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분권'의 가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져오는 '포용'의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혁신'의 가치가 실현되는 자치분권시대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가 앞장서서 '지방분권 협의 거버넌스'를 결성하여 자치분권과 특례시를 제대로 준비하여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김경희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노동정책 활성화 대책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 40년간 창원국가산업단지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창원시 노동정책 방향을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체계적 노동정책을 수행할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로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권리 확대 및 일반노동자보호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로 기업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을 사무국과 지역주체들과 협력, 조율하여 노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김상찬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 필요

저출산은 사회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비혼인구로부터 살펴봐야 한다. 현재의 환경이 결혼확률을 떨어뜨리게 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거의 불안정, 사회에 뿌리박힌 성차별적 구조 등이 주된 원인이다. 우리시도 저출산을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분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은 일과 생활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현순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야구장 명칭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

마산야구장은 역사가 오래된 예전부터 마산야구장으로 불리었는데 신구장을 지었다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마산야구장의 첫걸음은 1914년에 시작하였다. 마산에서 야구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힘을 기르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산은 야구와 함께 숨쉬고 발전해왔다.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에서는 마산야구 100년 역사적 유산을 두고 심층적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새야구장 명칭은 '마산야구장'이어야 하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야구장이 되길 기원한다.

정길상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국내외 방위산업의 환경 변화와 우리의 실상

지난 50년간 우리의 방위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함께 방위산업은 정체되어있고 창원시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방위산업이 위기라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원 유지법안은 상정도 되지 않았으며 최근 남북화해 및 비핵화로 방위산업 활성화는 요원하다. 창원시가 2019년을 미래전략사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부흥 원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방위산업과 항공산업, 원자력산업을 모두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여 내수산업을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전병호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마산에도 파크골프시설을 시급히 조성하라

파크골프는 일본에서 시작되어 1993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특히 노령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가족형 레포츠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구 창원과 진해지역에는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이 이미 조성되어 많은 회원들이 즐기고 있다. 다행히 의창구 대신면 낙동강변과 마산합포구 가포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마산회원구에는 아무런 계획조차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마산회원구 지역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

조영명 의원 |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문

창원시 의회는!

지난 5월28일 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774명에 대해 직접 고용 할 것을 명령하고 7월 3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법파견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77억 과태료를 내겠다고 입장발표 한 것에 대해 106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혈세지원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한국공장을 정상화하여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한국지엠에 대하여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고, 2018년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2차 3차 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우리시 시민인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하였고,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77억원의 과태료를 내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분노한다.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과태료를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업의 자세인가? 누가 봐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또한 도의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태에 대하여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검찰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책임자 카셈 사장을 법적으로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국민혈세 8,100억원 지원을 중단하라.

2018. 7. 26.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문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실효(일몰제)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여가문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사회적 가치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도시환경과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등산로 폐쇄 등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 자명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책임있게 해결해야할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몰제로 인해 창원시의 경우 전체 공원면적의 50.54%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만 1조1천억원이 예상됩니다.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사실상 창원시 자체 재원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사정은 비단 창원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은 지방사무라며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무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방안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원용지에 속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시 정부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방면의 조치를 적극 강구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방안을 조속히 해결하라

하나. 공원용지에 속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라

하나. 지방채발행 정부지원을 더 강화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방면의 조치를 강구하라

2018. 9. 4.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진해 연도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內 LNG 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문

진해 신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항만 개발을 위해 당초 사업비 16조 6,823억원을 투입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가덕도 북안 및 진해 옹동, 용원, 제덕만 일대 1,975㎡에 부두 44선석과 배후단지 944만㎡를 조성 중에 있다.

신항의 부두 면적은 부산이 42% 창원이 58%이며 항만배후부지는 부산이 18% 창원 82%로서 신항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진해가 70%이상으로 사실상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항 랜드마크사업으로 추진중인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은 사업비 1,013억원으로 2016년 착공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2년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설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2017년11월부터 2018년6월까지 (주)한국항만 기술단과 (주)더펜건축사무소에 LNG 벙커링 당초 조성 예정지역인 가덕도 북안에서 진해연도로 변경 설치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관리운영 방안 수립과 사업시행방안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또 다시 실시했다.

이는 결국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가덕도 북안에 설치예정인 LNG 벙커링 사업에 대한 위치를 진해 연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적이고 정략적인 의도로서 107만 창원 시민과 창원시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LNG 벙커링은 국내 최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고와 저장,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14기 이상이 설치될 것이다. 이미 국내에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를 비롯하여 6곳에 LNG 인수기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지속적인 민원과 잔류염소 누출과 어업피해와 운무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소송과 누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신항 조성 기간 내내 생활터전을 내어주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연도의 랜드마크사업 부지와 중복되는 LNG 벙커링 설치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해수부와 항만공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당초 설계하고 계획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107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지난해 부산항만공사는 진해구 안골동에 고압가스 110 TEU를 보관하는 장치장을 부산

에서 진해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도시 관리계획 절차와 주민 설명회를 무시하고 부지조성작업을 진행하다 백지화 했다. 또한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의 예·부선을 진해 영길만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창원시의회,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 또한 무산 되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신항”으로 명칭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부지의 70%가 창원이지만 부산시는 부산신항으로 확정하여 사용 중에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신항조성 사업으로 신항지역의 조성부지 72%를 창원시가 제공하고 어업항계선 까지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창원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조성으로 부산도심의 북항의 시설물을 신항으로 배치하고 부산 북항을 개발하면서 친수공간을 확보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하여 신항개발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다. 양곡과 목재 잡화를 처리하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신항의 서항이 위치한 진해측으로 집중배치하고 있다.

신항으로 인하여 창원시가 절대적 부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항만 공사가 부가가치가 낮은 항만물량과 위험 항만시설을 일방적으로 진해 측에 집중 배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창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자체간 전쟁을 하자는 것 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무가내식 행위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게 107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유류중계소와 LNG 병커링은 절대 연도로 들어올 수 없으며 당초연도에 설치할 해양문화공간조성 사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 9. 20.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문

현행「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로 시, 군, 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승격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어왔으나, 1997년 울산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의 승격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그 결과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통합시 등도 탄생하였으나 현행「지방자치법」은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공무원 정원과 재정규모 면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6년 김진표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이찬열, 김영진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의회,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행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018. 9. 20.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0년대 도시의 인구집중 및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및 녹지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은 4가지로 분류된 첫째, 도시구역의 한계를 정하여 도시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모이는 것을 막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적정 규모의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둘째, 도시주변의 숲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셋째, 도시주변의 일정한 구역에서 주택 공장 등과 같이 인구 집중을 가져오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통적인 우리의 농촌풍경을 보전하자는 것임 넷째, 인구 집중요인인 주택과 산업시설의 제한을 통해 주택과 산업을 분산시켜 전국토의 고른 발전을 꾀하는 것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를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이 당장 인구를 집중을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장래 도시가 팽창 될 우려가 있는 도청 소재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 공업기지와 같이 국가 주요산업 의 시행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산업도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특수한 지방 도시로 한정하였음.

창원시의 경우 1970년대 당시 정부의 대규모 기계공업 기지건설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도시 주변의 보전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1973년 6. 27. 마산 창원 진해권 주변으로 개발제한 구역 314.2km²가 지정 되었음.

1983년 창원군 웅동면의 진해시 편입과 1995년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갈등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도농통합)의 실시로 창원군 8개면 중 동면, 북면, 대산면 3개 면을 창원시에 진전, 진북, 진동, 구산, 내서면 5개 면을 마산시에 통합시켜 3개시의 행정구역이 각각 확대 개편되었음.

마산 창원 진해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도농 통합 행정구역 개편 취지와 다르게 개발 제한구역이 한 도시를 기존 시가지와 농촌지역으로 분리 및 단절시키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음.

1998년 개발제한구역 내 적정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 되었음.

도청소재지 산업도시 관광도시 등 7개 권역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은전면 해제가 되었으나 광역권의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과 함께 마산 창원 진해권역은 개발제한 구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됨.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결정의 부당함은 당시 존치가 결정된 개발 제한구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으로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정되었던 개발 제한구역이었던 반면 당시 마산 창원 진해시의 개발 제한 구역은 중소지방 산업도시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가 결정됨.

2차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도시의 외형적 확장이 이루어져 개발 제한 구역이 도시를 내외부로 양분하는 기이한 형태로 도시의 확산방지 및 적정규모의 유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게 됨.

2010년 정부 주도의 시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현재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 기초 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권이 유일한 상황이며 창원시 개발 제한구역의 면적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에 해당하여 창원시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현재 창원시 인구의 감소(2010년 통합이후 현재까지 약 4만명 감소) 및 제조업 기반의 기계조선 산업의 쇠퇴로 시가지 인구집중 요인이 사라졌으며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환상형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도시 확장이 제한되어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상실된 상황임.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49km² 중 해제 총량은 17.5km²이나, 2016년 국토교통부의 환경평가등급 재평가로 1~2등급지 상향 및 이에 따른 20만m²이상 정형화된 3~5등급지역이 축소되어 개발 제한구역 일부조정이라는 현행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창원시 도심지역 인근의 가용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및 문화 인프라 확장 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중앙부서 협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여(2~4년) 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창원시 도시발전에 현저한 걸림돌로 작용함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 군사시설(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의 경우 국가 유지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의 정비 및 개보수에 필요한 인허가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승인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상당한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국방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상주함

통합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며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권에 적용하는 개발 제한구역규제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규제혁신을 통하여 창원시 개발 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하며 이를 창원시의회는 106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함

2018. 9. 20.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생산, 운송, 저장, 사용, 응용)

관련 제품 및 부품 개발 성능평가 기반구축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4일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사업자선정 공고를 하였고, 11월에 최종 선정사업자를 발표 할 예정입니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0억원(국비 105억원, 지방비 105억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여 기업이 개발한 수소관련 소재, 부품, 기계의 내구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수소 산업관련 전문센터입니다.

이에 침체되어 있는 창원국가 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산업인 첨단 수소산업으로 재탄생시키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수소산업관련 기업이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창원시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반드시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관련제품 및 부품기업 560개사가 소재하는 전국 최대 수소기업 밀집 지역이며, 국내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주요기업 7개사* 중 국내 4개사가 모두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Ⅲ-배치1에 우리시 소재기업 (범한산업)에서 세계 두 번째로 수소연료전지추진체를 개발하여 납품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이런 신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관련업체는 물론, 우리 지역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6본부, 육군·해군종합정비창 등과 연계하여 중·소형선박, 지게차·굴삭기 등 중장비 분야, 방위산업, 철도산업 등으로 수소산업을 확장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7개 주요기업 : 이엠솔루션, 효성, 지티씨, 광신, 벨(노르웨이), 린데(독일), 에어리퀴드(프랑스)

우리시는 2015년 12월에 정부의 수소자동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2018년 10월 현재 넥쏘를 포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92대를 보급하였고, 수소충전인프라

또한 팔룡동 충전소 외에 성주동 충전소 등 올해 하반기까지 2개소를 추가 구축하는 등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충전소 6기, 수소차 1,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경제사회를 앞당기고 『수소산업 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수소산업의 전주기(생산, 저장, 유통, 사용, 응용 등)를 실증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 단지(HECS: Hydrogen Energy Cycle System)』를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조성하여 다양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수소 산업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특별시 조성을 위해 2018년 10월 국내 최초 “수소에너지 국제 전시회&포럼”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창원에서 개최되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 수소산업을 대표하는 행사로 성장시켜 수소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소경제사회를 견인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유치를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연결한 상복일반산업단지 내에 사업부지를 조성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 부지는 수소특화단지,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 사업과 연계 기업의 생산된 부품과 제품을 시험·평가·인증뿐만 아니라 실증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곳이며, 완암 IC와 인접하여 대형 운반차량 진입 용이하고, 산업단지 내 위치하여 사업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부지로 최적의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7만의 시민의 염원을 담아 창원시를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 9. 20.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문

106만 창원시민을 대의하는 창원시의회는!

최근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 일방적으로 재추진하려는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반대한다!

첫째, 비음산터널과 관련된 특혜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

김해시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김해복합스포츠단지를 진례지역에 추진하려 하고 이 사업과 연관되어 비음산터널 재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인공제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비음산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창원시의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에 의하면 비음산터널 개통 시 약 4만5천대에서 5만대의 차량이 터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터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으로 인해 인근 지역은 교통 혼잡이 일상화 될 것이다. 또한 터널이 뚫리지 않은 현재에도 의창·성산구 지역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터널 개통 시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창원시민의 삶의 질이 악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창원시의 심각한 인구 유출이 우려된다.

김해 장유지역은 창원 의창·성산구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15만 인구의 도시가 되었으며 비음산터널 개통으로 인해 또 한번 창원 인구가 김해 지역으로 유출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창원의 인구 유출은 현재 허성무 시장과 창원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인구 100만도시 대도시 특례시」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향후 창원시의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불모산터널 경쟁도로 방지 협약으로 혈세낭비가 초래된다.

경남도와 경남 하이웨이가 체결한 불모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3조에는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 도로가 신설되면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음산터널은 불모산터널의 경쟁도로가 되고 경남도는 사업자인 경남 하이웨이에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해 혈세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 비음산터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 터널을 이용하여 교통흐름의 분산을 추진하려는 고민과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며, 환경을 훼손하고 특혜성 시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일방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상남도는 김해시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경남 전체의 이익과 창원시의 입장을 고려해 우선 불모산터널의 요금인하 또는 무료화를 통해 창원터널의 교통량 분산을 추진하는 등 다른 대안을 세워 줄 것을 김경수 지사님께 건의 드리며 창원시의 동의를 전제되지 않은 비음산터널의 추진에 적극 반대한다.

2018. 10. 3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민중의 처절한 항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흘뿌린 눈물이 얼마이며, 흘린 피가 얼마였던가? 그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민주주의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유신체제에 맞서 부산과 마산에서 청년학생과 시민들이 떨쳐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부마민주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4대 민주화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관련자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헌정사에 미친 역사적 의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항쟁 발발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18. 10. 3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

지난여름 폭염일수도 1994년(12일 동안 계속 34도를 넘었고, 7월23일 38.2도, 7월24일 38.4도로 정점)을 뛰어 넘었고, 낮 최고기온, 열대야 지속일수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에게 전기는 음식이며, 옷이며, 생명과도 같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향후 전기를 생산할 때 원전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29%에 불과 했다고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지만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불의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대만은 1999년 중부 난터우(南投)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2,415명이 숨지는 대참사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1월 24일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 하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원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창원의 지역경제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원전사업관련 대기업이 내년부터 관리직 대상 2개월 유급(50%)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300여 협력사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근로자들 또한 실직 위기에 처하면서 탈원전의 폐해는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 의회는 국민의 음식이며, 옷이며, 생명과도 같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탈원전정책 폐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립된 섬과 같은 전력망을 가진 나라 중에는 우리가 세계 유일의 탈원전 국가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
1.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로 지역경제 또한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기업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1. 신고리 5·6호기에서 국민들이 공사재개를 선택한 취지대로 건설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1. 세계적 추세도 탈원전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2018. 12. 1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 남해고속도로 본선(마산외곽고속도로) =
 왕복8차선 확장 적극 추진과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문)

남해고속도로는 고속국도 10호선으로 예로부터 지형적 장애로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영호남의 양 경제권을 연결하게 되어, 두 지역간의 교통원활은 물론 남해안의 도서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는 1973년 개통되어 매년 교통량 증가로 2001년 마산 외곽도로가 개통되어 2008년 남해고속도로 본선으로 편입되면서 기존 남해고속도로(동마산, 서마산 경유)는 남해1지선으로 독립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내서IC는 내서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7만여 명 거주)와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 개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첨부 자료와 같이 매년 교통량 증가로 주말, 휴일, 퇴근시간이면 진주 지수IC부터 남해본선, 남해지선, 전구간(사진 참조)이 일일 최대 2012년 기준 72,000대에서 2018년 88,000대의 차량증가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어, 이로 인한 지방도로인 김해, 장유, 율하, 창원을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마창대교(도표 참조) 2008년 주말차량 10,000대에서 2018년 11월 현재 45,000대로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 남해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본선의 기능을 상실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남해본선 확장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겨우 편도 1차선이 늘어나는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이 또한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왕복 6차선 확장이 아닌 진주, 산인과 동일하게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남해고속도로 본선이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되면 남해1지선, 국도, 마창대교 통행도 원활하게 소통될 것입니다. 남해1지선의 관리권을 창원시에 이관하고 내서IC를 개방하여 통행료를 무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서IC 개통에 139억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개통이후 2004년 8월부터 14년 동안 약 32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로공사에서는 충분한 투자비를 회수하였으며 더 이상 통행료를 징수해야 할 명분이 없으리라 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첨부자료(도면)와 같이 내서읍민, 함안 산인 공단 및 수곡, 중리공단,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창원시민을 위해서 남해본선(마산외곽고속도로)을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고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을 창원시에 관리권을 이관하고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 12. 1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고용 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창원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문

창원은 1970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설치와 1974년 “한국기계공업공단”이 설치되면서 국가적인 수출 전진 기지로 기계공업의 요람으로 성장·발전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동북아 허브를 위해 만든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경쟁력 있는 명실상부한 제조 산업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아래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수출산업과 기계산업을 선도해 오면서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부인 할 수도 없습니다.

산업화시대에 공장이 들어서고 근로자들이 모여 살던 공업도시가 성장하여 행정과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원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산업발전이 한계에 이르러 인구는 줄어들고 팽창과 성장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창원의 인구는 2011년 109만1,881명을 정점으로 7년간 연평균 약 5,000명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유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부분이 미래세대인 20~30대 젊은 층의 이탈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이끄는 5대 기반산업인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장비, 제조업(조선업) 등의 침체가 속도를 더하고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 시키면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켜지지 않는 집들이 늘어나고, 상가는 문을 열지 않거나 저녁 9시가 지나기 바쁘게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니는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 몰라 앞날을 걱정하는 근로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가 넘쳐 나고 부동산 가치는 급락하여 개인자산 또한 많은

손실을 가져오면서 소비의 위축은 더욱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 의회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며 어려운 경제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창원시 전역을 「고용 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STX조선, 한국GM 창원공장,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제조업뿐만 아니라 창원지역 상장사 50% 정도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창원 제조업의 양대 축인 조선과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모든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시민 모두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와 상장사의 위기는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 협력사들은 종업원과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가정경제의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시민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제조업을 살려 내기위해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창원시 전역을 「고용 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우리 창원이 국가발전과 수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 12. 20.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소통과 화합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 치 우 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영광스러운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3선 경륜을 바탕으로 선진의회
의 지위와 역할 정립에 힘을 기울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제3대 창원시의회는 여러 정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의장단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창원시의회 의정구
호처럼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역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집행부와는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의 기능
을 충실히 수행해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반드시 강화해 나가겠다. 창원시의
원의 역량강화에도 힘쓰겠다.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타 지방의회의 우
수사례 벤치마킹, 의정연찬회, 토론회 등을 확대 실시할 것이며,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발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시민
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해 대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소통
과 화합의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의원 전문지식 함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손 태 화 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6선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시 제3대의회의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 제3대창원시의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
에 와 있다. 지방정부의 여야 교체와 의회의 여야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의
회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시정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
기 창원시의 출범을 맞아 안정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
조를 다 할 것이다. 또한 집행기관의 독주가 되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을 통
하여 효율적인 견제와 협조로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서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동안 미흡했던 의회 운영 부분에 있어
서도 상임위원장간 의견 조율과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
나하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선진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리
고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확정 전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
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늘 현장 뛰며 확인하고 연구 노력할 것



김순식 위원장
경제복지여성위원장

위원장으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온 몸과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 나가겠다.

또한, 보편적 복지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복지 권리 향상에 힘쓰겠다. 서민 경제 활성화와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자리확대를 위한 다양한 창업활동 및 각종 일자리 지원에 최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최근 미·중 무역 갈등, 금리인상,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11명의 의원이 함께 현장을 뛰며 확인하고 연구하며, 시민과는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이뤄 미래지향적인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시민기대 부응해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 최선



노창섭 위원장
환경해양농림위원장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다. 마산해양신도시,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도시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창원시의 중요한 대형사업과 주남저수지, 미세먼지, 생활쓰레기처리, 마산·창원·진해권 각 3개권으로 분리 운영되는 상·하수도 체계, 농·축·수산 정책 등을 다룬다. 앞으로 2년 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더 공부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연구하는 환경 해양농림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여야 간에 협치하는 의회, 시민들에게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회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대로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 보다 실력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 8년 동안 창원시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살려 환경해양농림위원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 실력 있는 의회로 의회의 위상을 반드시 높이겠다.

106만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높ی겠다



이해련 위원장
문화도시건설위원장

창원시의 주인은 바로 106만 창원시민들임을 깊이 인식하겠다. 더욱 성숙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상임위다. 시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지금 한창 추진 중인 도시재생, 재개발사업과 시민의 생활과 직면한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문화가 있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지역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들과 협의해 더 나은 창원을 만들겠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겸손한 자세로 합리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치우)는

제7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제8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창원시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제76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7.17~7.26.(10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9.4. ~ 9.28.(25일간)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의하였다.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10.24~10.31.(8일간)개최하기로 하였고,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0회 창원시의회 의사일정을 11.26. ~ 12.20.(25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제7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8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201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 및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제79회 창원시의회(임사회) 기간 중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 및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9년 ~ 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 받았다.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수정가결하였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식)는

제7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8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창원시 진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하였다.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해강마을을 방문하여 장애인시설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창원시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받고, 북면(감계)복지회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노창섭)는

제76회 창원시의회(임사회) 기간 중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제77회 창원시의회(임사회) 기간 중

2018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 하였다.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제79회 창원시의회(임사회) 기간 중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의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명동마리나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현장 및 LNG 벙커링터미널 후보지, 마산해양신도시, 돌섬 등 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장을 둘러보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제9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기초시설을 둘러보며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제7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8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4일간 실시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하였다.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공지원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총무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 하였다.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으며,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2019년도 회기 운영 계획

월별	회 별	회 기	주요 처리 안 건	비 고
1월	제81회 (임사회)	1. 18.(금)~1.24.(목) (7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3월	제82회 (임사회)	3.12.(화)~3.22.(금) (11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대마도의 날 3.18(월)
5월	제83회 (임사회)	5.9.(금)~5.16.(목) (8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의정연찬회 5.23(목)~5.24(금)
6월	제84회 (제1차 정례회)	6.5.(수)~6.28.(금) (24일간)	○ 행정사무감사 ○ 2018년도 결산,기금,예비비 승인 ○ 시정질문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7월	제85회 (임사회)	7.19.(금)~7.26.(금) (8일간)	○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7.1.(일)
9월	제86회 (임사회)	9.18.(수)~9.27.(금) (10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추석연휴 9.12.(목)~9.15.(일)
10월	제87회 (임사회)	10.25.(금)~10.31.(목) (7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11월 ~12월	제88회 (제2차 정례회)	11.25.(월)~12.20.(금) (26일간)	○ 2020년도 예산안 및 주요 업무보고, 기타 안건 등	의정연찬회 11.6(금)~11.8(금)

※ 매 회기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의회소식

2019. 1. 25. (제26호)

발행인 | 창원시의회의장

발행처 | 창원시의회 사무국 055)225-5331~5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 council.changwon.go.kr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